

횡성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横城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

## 地域活性化国際フォーラム

횡성군

2025. 11. 27.(목) 14:00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

2025年11月27日(木) 14:00  
横城郡庁3階 大会議室

프로그램

횡성지역 활력제고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구분 / 시간	내 용
<p>개회 (14:00~1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소개 : 사회자 (횡성군 자치행정과장)</li> <li>▶ 개 회 사 :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li> <li>▶ 환 영 사 : 김명기 (횡성군수)</li> <li>▶ 축 사 :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li> <li>▶ 축 사 : 후지타 에츠오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li> </ul>
<p>발표 (14:30~1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본의 농촌지역 지방창생 정책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사례 - 미야바야시 시케유키 (일본동경농대 교수)</li> <li>② 일본 미야기현 지역창생 추진 소개: 농촌지역의 "일자리 만들기" - 후지타 에츠오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li> <li>③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역 활력제고 전략: "횡성군을 중심으로" -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li> </ul>
<p>휴식 (15:30~15: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 진행자 및 참석자</li> </ul>
<p>종합토론 (15:40~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li> <li>▶ (지정토론 5명, 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li> <li>- 김민지 (Channel A 차장)</li> <li>- 배승중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기연 교수)</li> <li>- 이달환 (횡성군 행정복지국장)</li> <li>-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li> </ul> </li> <li>▶ (종합정리) 참석자</li> </ul>

プログラム

横城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地域活性化国際フォーラム

区分 / 時間	内容
<p>開会 (14:00~1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参加者の紹介：司会者（横城郡自治行政課長）</li> <li>▶ 開会辞：陸東一（韓国地方行政研究院長）</li> <li>▶ 歓迎辞：金明起（横城郡守）</li> <li>▶ 祝 辞：表漢常（横城郡議会議長）</li> <li>▶ 祝 辞：藤田悦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長）</li> </ul>
<p>発表 (14:30~15: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日本における地域活性化と流域交流・連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宮林茂幸（東京農業大学名誉教授）</li> </ul> </li> <li>② 宮城県の地域創生の取組紹介：農村地域の『なりわいづく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藤田悦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長）</li> </ul> </li> <li>③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を中心に</li> <li>- 梁源卓（韓国地方行政研究院人口減少地域対応センター長）</li> </ul> </li> </ul>
<p>休憩 (15:30~15: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休憩) 司会者および参加者</li> </ul>
<p>総合討論 (15:40~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座長) シン・ドウソプ (韓国地方行政研究院地方投資事業管理センター所長)</li> <li>▶ (指定討論者5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ク・ジョンテ（大韓民国市長郡守区庁長協議会選任専門委員）</li> <li>- キム・ミンジ（Channel A 次長）</li> <li>- ペ・スンジョン（ソウル大学グリーンバイオ科学技術研究院教授）</li> <li>- イ・ダルファン（横城郡行政福祉局長）</li> <li>- ハン・ヨンドク（行政安全部均衡発展制度課書記官）</li> </ul> </li> <li>▶ (まとめ) 参加者</li> </ul>

## 개 회

- |                         |     |
|-------------------------|-----|
| 1. 개회사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006 |
| 2. 환영사 (김명기 횡성군수)       | 008 |
| 3. 축사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    | 010 |
| 4. 축사 (후지타 에츠오)         | 012 |

## 발 표

- |   |     |
|---|-----|
| 1. 발표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교수)                           | 017 |
| - 일본의 지역 활성화와 유역(流域) 교류 및 연계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및 연계) |     |
| 2. 발표 (후지타 에츠오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 031 |
| - 미야자키현의 지역 창생 대응 소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     |
| 3. 발표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 059 |
| -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     |

## 종합토론

- |                                    |     |
|------------------------------------|-----|
| 1. 토론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093 |
| 2. 토론자료 (김민지 채널A차장)                | 101 |
| 3. 토론문 (배승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기연 교수)     | 121 |
| 4. 토론자료 (이달환 횡성군 행정복지국장)           | 127 |
| 5. 토론문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 135 |

## 開会

- |                                |     |
|--------------------------------|-----|
| 1. 開会辞：陸東一（韓国地方行政研究院長）         | 007 |
| 2. 歓迎辞：金明起（横城郡守）               | 009 |
| 3. 祝 辞：表漢常（横城郡議会議長）            | 011 |
| 4. 祝 辞：藤田悦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長） | 013 |

## 発表

- |                                 |     |
|---------------------------------|-----|
| 1. 日本における地域活性化と流域交流・連携          | 017 |
| － 宮林茂幸（東京農業大学名誉教授）              |     |
| 2. 宮城県の地域創生の取組紹介：農村地域の『なりわいづくり』 | 045 |
| － 藤田悦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長）       |     |
| 3.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 075 |
|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を中心に                  |     |
| － 梁源卓（韓国地方行政研究院人口減少地域対応センター長）   |     |

## 総合討論

- |                                   |     |
|-----------------------------------|-----|
| 1. ク・ジョンテ（大韓民国市長郡守区庁長協議会選任専門委員）   | 098 |
| 2. キム・ミンジ（Channel A 次長）           | 111 |
| 3. ペ・スンジョン（ソウル大学グリーンバイオ科学技術研究院教授） | 125 |
| 4. イ・ダルファン（横城郡行政福祉局長）             | 132 |
| 5. ハン・ヨンドク（行政安全部均衡発展制度課書記官）       | 139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살리기 포럼 - 횡성지역 활력제고 전략」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지역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는 매우 뜻깊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공동 개최해 주신 김명기 횡성군수님,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시실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CLAIR 서울사무소의 후지타 에츠오 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 포럼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위해 멀리 일본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일본 동경농대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교수님과 CLAIR 서울사무소 후지타 에츠오 소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원탁 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주시실 신두섭 소장님과 토론자 다섯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문적 식견이 지역의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횡성군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앞으로의 30년, 대한민국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횡성군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며,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횡성군의 활력 제고 전략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포럼 준비에 힘써주신 횡성군과 CLAIR 서울사무소,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

皆様、こんにちは。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院長、陸東一でございます。

本日は「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横城郡の地域力向上戦略」にご参集いただきました内外のご来賓の皆様、そして関係各位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少子高齢化、さらには人口減少に伴う地方消滅の危機が加速する今、地域自らが未来を構想設計し活力を取り戻すための知恵を結集するこの場は、誠に意義深いものと存じます。まず、本フォーラムを共同開催してくださいました金明起横城郡守、そして歓迎のご挨拶を賜りました表漢常横城郡議会議長に深く御礼申し上げます。また、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の藤田悦生所長にも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三機関の緊密な協力があってこそ、本日のフォーラムが実現いたしました。

さらに、本日の発表のために日本から貴重なお時間を割いてご参加くださった東京農業大学宮林茂幸教授、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の藤田悦生所長、そして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ヤン・ウォンタクセンター長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討論を率いてくださる申斗燮所長、並びに五名の討論者の皆さまに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皆様の卓越したご見識は、地域に必要な実質的解決策を導き出すうえで大きな力となることでしょう。

今年は韓国の地方自治が復活してから30余年の節目にあたります。この間、地方政府は住民の生活の質の向上と地域の発展のために不断の努力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今こそ、こうした蓄積を踏まえ、もう一つの大きな転換を図るべき時期に来ていると考えます。とりわけ横城郡は、農村地域としての特性と潜在力を兼ね備えた地域であり、これからの30年、韓国の地域イノベーションを牽引するモデル地域へと成長する十分な力と可能性を有しています。本日のフォーラムが、その第一歩とな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おります。

人口減少や地域消滅の課題は、いずれか一つの機関だけで解決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地方政府、中央政府、研究機関、そして何より地域住民がともに参画する、官・民・研が連携した協働ガバナンスの構築が不可欠です。横城郡が多様な主体が参加する持続可能な協力体制を築いていかれるならば、地域の現状を正確に把握し、実効性ある政策を設計し、さらに革新的な事例を創出するうえで大きな推進力となるに違いありません。

本日の議論が、横城郡の地域力向上戦略をより具体化し、さらには地域革新を先導する重要な基盤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最後に、本フォーラムの準備にご尽力いただいた横城郡、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そして当研究院の関係各位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ご臨席の皆さまのご健勝とご多幸を祈念し、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5年11月27日

韓国地方行政研究院長 陸東一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김명기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인구감소·지방소멸시대 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 국제포럼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의 파고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이 주도하여 스스로 자치 실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농촌지역의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과제로 꼽히며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포럼 역시 바로 그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 한 해 우리 군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6년 병오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횡성의 지방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며, 대한민국보다 먼저 관련 위기를 겪고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한 일본의 사례도 같이 확인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횡성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차근차근 키워왔습니다.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및 편리한 교통망, 귀농귀촌 및 주민 주도 마을활성화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우리 군이 가진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우리 군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기 속에 산재되어 있는 더 큰 기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횡성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육동일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후지타 에츠오 서울사무소장님, 그리고 귀중한 분석과 조언으로 횡성의 내일을 밝혀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석하시어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

횡성군수 김명기

皆様、こんにちは。横城郡守の金明起でございます。

いつの間にか2025年が暮れようとしております。お忙しい中、横城郡にて開催される「人口減少・地方消滅時代における住民主導地域活性化国際フォーラム」にご出席いただきました皆様に、心より歓迎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感謝の意を表します。

少子高齢化に伴う地域消滅の波は日増しに高まり、地域が生き残るための戦略をいかに描くべきかという課題は、ますます深刻さを増しております。多様な解決策が議論されておりますが、住民自らが主体となって自治実現のための課題を発掘し、農村地域の特性に即した効果的な方策を講じることが、何よりも喫緊の課題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こうした状況の中、各自治体においても、積極的に地方消滅の危機を乗り越えるべく、まさに総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います。

本日のフォーラムは、横城郡、韓国地方行政研究院、そして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が共同で企画したものであり、まさにそのような取り組みの延長線上に位置づけられるものです。本日は、本年一年間にわたり横城郡が歩んできた道を振り返るとともに、心を新たにして2026年丙午の年を迎える意義深い場となっております。横城が直面する地方消滅の危機を真摯に見据え、住民主体の地域活性化を一層強化するための多様な戦略について議論するとともに、韓国より先に同様の課題に直面し、多角的な解決策を模索してきた日本の事例も併せて確認するとともに、専門家の皆様から貴重なご意見を賜るべく、本日の場が設けられました。

私ども横城郡は、地域に新たな活力を吹き込み、未来世代により大きな希望を託すために、生命産業と言える農畜産業を超えて未来型モビリティ産業の先取りと育成に力を注いでまいりました。首都圏への優れたアクセス性や便利な交通網、そして帰農・帰村支援や住民主体の地域づくり事業への全面的な支援は、横城郡が誇る大きな魅力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何卒今回のフォーラムが、横城郡の強みを改めて確認するとともに、危機の中に点在するさらなる可能性を見だし、持続可能な横城へ向けて歩みを進める貴重な機会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最後に、本フォーラムの開催に向けて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陸東一院長をはじめ、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職員の皆様、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の藤田悦生所長、そして横城の未来に光を当てる貴重な分析とご助言をお寄せくださった専門家の皆様、さらには本日のフォーラムにご参加いただき、地域の明日を共に考えてくださったすべての皆様に、改めて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残り少ない本年をどうか有意義にお過ごしくださり、来る2026年・丙午の年が、皆さまにとって穏やかで幸多き一年となりますよう、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5年11月27日

横城郡守 金明起

##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포럼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장 표한상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포럼’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변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횡성군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인구감소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본의 다양한 사례와 제안들이 횡성군의 정책 발전과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육동일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과,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후지타 에츠오 서울사무소장님, 그리고 포럼에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활력 있는 횡성,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

횡성군의회 의장 표한상

## 住民主導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

皆様、こんにちは。横城郡議会 議長の表漢常でございます。

人口減少と高齢化による地方消滅の危機は、もはや遠い未来の話ではありません。今こそ、単なる人口増加策にとどまらず、地域の持続可能性を守るための根本的な解決策を模索すべき時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重要な時期に開催される「住民主導 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は、誠に意義深く、時宜を得た場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横城郡は、豊かな自然環境と温かいコミュニティ精神が息づく地域であります。しかしその一方で、人口減少や地域経済の停滞により、コミュニティの活力が弱まりつつある現実も直視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な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行政の努力だけでなく、住民自らが主体となって地域の未来を描く力が不可欠であります。

横城郡議会は、こうした変化を力強く支えるため、政策的・制度的な支援を惜しまず、郡民の声をより身近で伺い、地域の多様な意見が政策へ反映されるよう、対話と協力の場を広げてまいります。

また、住民主導の地域活性化が実質的な成果へとつながるよう、郡政とともに知恵を絞り合い、持続可能な発展の道とともに模索してまいります。

本日のフォーラムが、人口減少時代を賢明に乗り越え、住民・行政・議会が一体となって創り上げる新たな地域発展の方向性を示す出発点となることを心より期待しております。また、日本における多様な事例やご提言が、横城郡の政策発展や地域活性化戦略の策定に大いに役立つ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このような意義深い場を設けてくださった陸東一院長を始めとする韓国地方行政研究院の職員の皆様、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の藤田悦生所長、そして本フォーラムにご参加いただいた専門家の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が、活力ある横城、そして持続可能な地域コミュニティづくりへとつながる貴重な契機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祈念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5年11月27日

横城郡議会 議長 表漢常

## 인구감소 · 지방소멸시대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포럼 축사

안녕하십니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후지타 에츠오 입니다. 오늘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와 ‘지방소멸위기’ 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주민 주도 지역 활성화’ 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명기 횡성군수님,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 · 일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최근 한 · 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더욱 진전되고 있다” 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발전적인 논의는 양국 교류의 심화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전문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분야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이 도출되고,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 후지타 에츠오

## 「人口減少・地方消滅時代、住民主導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祝辞

こんにちは。クリアソウル事務所 所長の藤田悦生です。

日韓両国が直面している重要な課題である「人口減少」や「地方消滅の危機」に対して、「住民主導による地域活性化」という観点から解決策を議論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本セミナー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また、本日の開催にあたりご尽力されましたキム・ミヨンギ横城郡守、ユク・ドンイル韓国地方行政研究院長をはじめ、関係者の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去る10月30日には、日韓両国の首脳による会談が行われました。報道によりますと、日本の高市首相からは「最近、日韓両国の地方自治体同士の連携は、人口減少をどう解決するかなど、共通の課題に関する知見を共有する形で進められている」との言及があり、また「自治体同士が発展的な議論を行うことは、交流の深化につながる」と述べられました。

私もまさにその通りだと感じており、両国の知見を共有し、議論を深め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改めて強く感じています。

今回のセミナーには、日韓両国の専門家、行政機関、そして地方自治体や民間の関係者など、多様な分野の皆様が参加されています。

本日この場を通じて、両国が共通して抱える人口減少などの課題に対して、新たなアイデアや政策の方向性が生まれ、今後の地域づくりに向けた貴重なヒントが得られることを心より期待しています。

最後に、本日のセミナーにご参加の皆様のご健康とご多幸をお祈り申し上げ、祝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5年11月27日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所長 藤田悦生



횡성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横城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地域活性化国際フォーラム

**-발표 (発表) -**



## 1. 발표 (発表)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교수  
日本における農山村と都市の連携



## 지역 활성화 포럼

# 일본의 지역 활성화와 유역(流域) 교류 및 연계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및 연계)

2025. 11월 26일~27일

도쿄농업대학교 명예교수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 머리말 (시작하며)

### はじめに

1. 日本と韓国は、今日、都市と地方における社会経済の不均衡発展という交流の課題→食料・国土・環境などの安全保障問題に発展

2. 日本の場合農山村人口は総人口の10%程度、国土の6割を占める森林地帯(山村)は3%に過ぎない→総人口の大半が都市に集中:都市過密・地方過疎(第二の過疎化)

3. 今回のフォーラムでは、日本において先駆的に進めてきている都市と農山村交流・連携を取り上げることとする→都市と農山村交流・連携から流域交流・連携への転換→流域経済圏

### 4. 今回の発表の内容

1) 日本における農山村の現状と課題

2) なぜ都市と農山村交流・連携か→流域連携への転換

3) 世田谷区と川場村の交流・連携

4) 小菅村における流域交流・連携

### 머리말 (시작하며)

1.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도시와 지방 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발전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식량·국토·환경 등의 안보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경우 농산촌 인구는 총인구의 10% 정도이며,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산림 지대(산촌)는 (총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 총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 도시 과밀·지방 과소(제2의 과소화)

3.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에서 선구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및 연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및 연계에서 유역(流域) 교류 및 연계로의 전환 → 유역 경제권

### 4. 이번 발표의 내용

1) 일본 농산촌의 현황과 과제

2) 왜 도시와 농산촌 교류 및 연계인가 → 유역 연계로의 전환

3) 세타가야구와 가와바마을의 교류 및 연계

4) 고스게 마을의 유역 교류 및 연계

## 1) 일본 농산촌의 현황과 과제

### (1) 山村(上流域)の現況

- ① 国土面積の5割: 1,785万ha(47.2%)
  - ② 森林面積の6割: 1,538万ha(61.2%)
  - ③ 全人口に占める割合: 435万人(3.4%)
  - ④ 全国市町村数の4割: 752市町村
  - ⑤ 一人当たりの森林面積  
山村→3.5ha/人  
全国→0.2ha/人
- 国土保全の最前線、水資源涵養の基地  
果樹・園芸・畜産の基地

### (1) 산촌(상류역)의 현황

- ① 국토 면적의 50%: 1,785만 헥타르 (47.2%)
  - ② 산림 면적의 60%: 1,538만 헥타르 (61.2%)
  - ③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435만 명 (3.4%)
  - ④ 전국 시정촌 수의 40%: 752개 시정촌
  - ⑤ 1인당 산림 면적  
산촌 → 3.5 헥타르/인  
전국 → 0.2 헥타르/인
- 국토 보전의 최전선, 수자원 함양의 기지  
과수·원예·축산의 기지

## 목재 가격의 추이 (변화)

### 1980년

스기丸太價格 39,600円/m<sup>3</sup>  
 히노키丸太 76,400円/m<sup>3</sup>  
 山元立木스기 22,707円/m<sup>3</sup>  
 山本立木히노키 42,947円/m<sup>3</sup>  
 米ツガ丸太 22,600円/m<sup>3</sup>  
 米マツ丸太 27,200円/m<sup>3</sup>

### 2009년

스기丸太價格 10,900円/m<sup>3</sup>  
 히노키丸太 21,300円/m<sup>3</sup>  
 山元立木스기 2,548円/m<sup>3</sup>  
 山本立木히노키 7,850円/m<sup>3</sup>  
 米ツガ丸太 23,500円/m<sup>3</sup>  
 米マツ丸太 27,400円/m<sup>3</sup>

### 2021년

스기丸太價格 13,400円/m<sup>3</sup>  
 히노키丸太 19,700円/m<sup>3</sup>  
 山元立木스기 8,000円/m<sup>3</sup>  
 山本立木히노키 20,000円/m<sup>3</sup>  
 米ツガ丸太 23,000円/m<sup>3</sup>  
 米マツ丸太 25,400円/m<sup>3</sup>

### 1980년

삼나무 원목 가격 39,600엔/m<sup>3</sup>  
 노송나무 원목 76,400엔/m<sup>3</sup>  
 산지 원목 삼나무 22,707엔/m<sup>3</sup>  
 산지 원목 노송나무 42,947엔/m<sup>3</sup>  
 미국 솔송나무 원목 22,600엔/m<sup>3</sup>  
 미국 소나무 원목 27,200엔/m<sup>3</sup>

### 2009년

삼나무 원목 가격 10,900엔/m<sup>3</sup>  
 노송나무 원목 21,300엔/m<sup>3</sup>  
 산지 원목 삼나무 2,548엔/m<sup>3</sup>  
 산지 원목 노송나무 7,850엔/m<sup>3</sup>  
 미국 솔송나무 원목 23,500엔/m<sup>3</sup>  
 미국 소나무 원목 27,400엔/m<sup>3</sup>

### 2021년

삼나무 원목 가격 13,400엔/m<sup>3</sup>  
 노송나무 원목 19,700엔/m<sup>3</sup>  
 산지 원목 삼나무 8,000엔/m<sup>3</sup>  
 산지 원목 노송나무 20,000엔/m<sup>3</sup>  
 미국 솔송나무 원목 23,000엔/m<sup>3</sup>  
 미국 소나무 원목 25,400엔/m<sup>3</sup>

## 농산촌의 현황

### 1. 生活基盤である農林業の崩壊:

生産価格の低迷→採算性の悪化→農林業離れ→国土崩壊

### 2. 目に見えて進む過疎および少子高齢化: 山地化 (第二の過疎)

農山漁村の空洞化、文化の解体→少子高齢化社会

### 3. 自然環境の悪化

遊休農地の増加、放置された森林の増加→環境の悪化



### 1. 생활 기반인 농림업의 붕괴:

생산 가격의 침체 → 채산성 악화 → 농림업 이탈 → 국토 붕괴

### 2. 눈에 띄게 진행되는 과소 및 저출산 고령화: 산지화 (제2의 과소)

농산어촌의 공동화, 문화의 해체 → 저출산 고령화 사회

### 3. 자연환경의 악화

유휴 농지 증가, 방치된 산림 증가 → 환경 악화



## (2) 일본 농산촌을 둘러싼 현황

### ① 生活基盤である農林業の崩壊: 第二の安全保障

木材価格の低迷→採算性の悪化→農林業離れ→国土崩壊

② 目に見えて進む過疎および少子高齢化: 山地化 (第二の過疎) 農山漁村の空洞化、文化の解体→限界集落

### ③ 自然環境の悪化

遊休農地の増加、放置された森林の増加→環境の悪化

### (3) 少子高齢化の先進地

① この50年間に人口42%の減(全国29%増)

② 64歳以下58%減(全国5%増)

③ 65歳以上は34%増(全国23%増)

\* 近年は全国で少子高齢化傾向

### ① 생활 기반인 농림업의 붕괴: 제2의 안전 보장

목재 가격의 침체 → 채산성 악화 → 농림업 이탈 → 국토 붕괴

② 눈에 띄게 진행되는 과소 및 저출산 고령화: 산지화 (제2의 과소) 농산어촌의 공동화, 문화의 해체 → 한계 취락

### ③ 자연환경의 악화

유휴 농지 증가, 방치된 산림 증가 → 환경 악화

### (3)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 지역

① 지난 50년간 인구 42% 감소 (전국 29% 증가)

② 64세 이하 58% 감소 (전국 5% 증가)

③ 65세 이상은 34% 증가 (전국 23% 증가)

\*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경향

### (3)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 지역

①この50年間に人口42%の減(全国29%増)

②64歳以下58%減(全国5%増)

③65歳以上は34%増(全国23%増)

\* 近年は全国で少子高齢化傾向

① 지난 50년간 인구 **42% 감소** (전국 29% 증가)

② 64세 이하 **58% 감소** (전국 5% 증가)

③ 65세 이상은 **34% 증가** (전국 23% 증가)

\* 최근에는 전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경향

### (4) 지역 (산촌)의 역할

1. 国土保全: みどりの安全保障

森林の6割、国土保全の最前線

2. 森林を守る担い手: 水の安全保障

水源林を守るコミュニティの創造

3. 食料生産基地: 食料安全保障

米をはじめ園芸作物、高原野菜、果樹、畜産など安心・安全な食料生産に貢献

1. 국토 보전: 녹색 안전 보장

산림의 60%, 국토 보전의 최전선

2. 산림을 지키는 담당자: 물의 안전 보장

수원림을 지키는 커뮤니티의 창조

3. 식량 생산 기지: 식량 안전 보장

쌀을 비롯하여 원예 작물, 고랭지 채소, 과수, 축산 등 안심·안전한 식량 생산에 공헌

## 2) 왜 도시와 농산촌 교류 및 연계인가

### (1) 環境の時代のために

- ① 環境循環の経済社会: 環境交流
- ② 安全な社会: 食・国土の安全: 防災交流
- ③ 豊かな社会: ヒト・モノ・文化: 豊かな交流
- ④ 参加する社会: 多様なセクター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 共助(対等)の交流→SD

⑤ 責任をもつ社会: 生産の責任、消費の責任: 文化交流→SDGS, ESD

\* 参加型社会による地域づくり(「縁組」交流)

### (1) 환경 시대를 위하여

- ① 환경 순환의 경제 사회: 환경 교류
- ② 안전한 사회: 식량·국토의 안전: 방재 교류
- ③ 풍요로운 사회: 사람·물건·문화: 풍요로운 교류
- ④ 참여하는 사회: 다양한 부문 간의 파트너십: 공조(대등)의 교류 → SD

⑤ 책임을 지는 사회: 생산의 책임, 소비의 책임: 문화 교류 → SDGs, ESD

\* 참여형 사회에 의한 지역 만들기 ('인연 맺기' 교류)

## (2) 지방 재생의 기본 방향 교류·연계

安全な地域社会  
地域の持続性  
参加する地域づくり

안전한 지역 사회  
지역의 지속성  
참여하는 지역 만들기

↓  
責任ある社会

↓  
책임 있는 사회

本物を生産すること  
本物を消費すること

진정한 것(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  
진정한 것(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

安全な地域社会

안전한 지역 사회

地域の持続性  
지역의 지속성

参加する地域づくり

↓  
참여하는 지역 만들기

### (3) 도시와 지방의 공통 과제

- |   |   |
|---|---|
| <p>①人口減少: 空き家・土地利用と管理・コミュニティの衰退: 生きがいの持てる暮らし</p> <p>②ポストコロナ禍の社会: 人間らしさ→物質循環</p> <p>③異常な物価高と経済低成長: 高度所得→安定所得</p> <p>④循環型社会のグランドデザイン: 家族・コミュニケーション・コミュニティ・協働・環境共生</p> <p>⑤AI・IT社会の暮らし: 新しい価値観: 安心・安心量(生産・消費)の経済→質(暮らし)の経済</p> <p>参加型社会と環境資本主義→交流・連携による豊かさ</p> <p>都市・総山村交流・連携から流域興隆・連携への転換</p> | <p>① 인구 감소: 빈집·토지 이용과 관리·커뮤니티의 쇠퇴: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삶</p> <p>② 포스트 코로나 사회: 인간다움 → 물질 순환</p> <p>③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 저성장: 고도 소득 → 안정 소득</p> <p>④ 순환형 사회의 그랜드 디자인: 가족·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협동·환경 공생</p> <p>⑤ AI-IT 사회의 삶: 새로운 가치관: 안심·안심량(생산·소비)의 경제 → 질(삶)의 경제</p> <p>참여형 사회와 환경 자본주의 → 교류·연계에 의한 풍요로움</p> <p>도시·총산촌 교류·연계에서 유역 부흥·연계로의 전환</p> |
|---|---|

### 3) 세타가야구와 가와바무라의 교류·연계

#### (1) 「綠組」事業40周年

- ①相互理解交流: 「綠組」→ふるさとづくりと農山村体験: 保養や休養・娯楽・レクリエーション
- ②ものづくり交流: 友好の森事業: 森林(やま)づくり塾・農業塾: 交流の担い手
- ③ことづくり交流: 相互依存→防災協定・環境貢献・文化交流(環境保全・食の安全・安心)
- ④ひとづくり交流: 移動教室・里山自然学校
- ⑤地域づくり交流・連携: 交流文化の創造: 親戚付き合い→日常的な交流→協働によるふるさとづくり

#### (1) '인연 맺기(綠組)' 사업 40주년

- ① 상호 이해 교류: '인연 맺기' → 고향 만들기(마을 조성)와 농산촌 체험: 보양이나 휴양·오락·레크리에이션
- ② 물건 만들기 교류: 우호의 숲 사업: 산림(산) 만들기 학원·농업 학원: 교류의 담당자
- ③ 일 만들기 교류: 상호 의존 → 방재 협정·환경 공헌·문화 교류(환경 보전·식량의 안전·안심)
- ④ 사람 만들기 교류: 이동 교실·사토야마 자연 학교
- ⑤ 지역 만들기 교류·연계: 교류 문화의 창조: 친척 관계 → 일상적인 교류 → 협동에 의한 고향 만들기

## (2) '인연 맺기' 사업의 경제성

① 関係人口の拡大: 移動教室、里山自然教室 森林・農業塾、茅葺塾等 → 入込者数3万人から200万人 → 関係から移住へ

② 農業の6次産業化 → 出荷する農業から販売する農業 → 安心・安全な生産

③ 観光事業の拡大 → 道の駅田園プラザの展開 → 利用数200万人 → 日本一の道の駅

④ 地場材を活用したブランド商品開発 → 専門kを招聘する研究開発 → 企業連携へ

① 관계 인구의 확대: 이동 교실, 사토야마 자연 교실, 산림·농업 학원, 역사 지붕 역기 학원 등 → 유입 인구 3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 관계 인구에서 이주로

② 농업의 6차 산업화 → 출하하는 농업에서 판매하는 농업으로 → 안심·안전한 생산

③ 관광 사업의 확대 → 휴게소(道の駅) 전원 플라자의 전개 → 이용수 200만 명 → 일본 제일의 휴게소

④ 현지 재료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 → 전문가를 초빙하는 연구 개발 → 기업 연계로



쇼와 56년 (1981년) 당시  
교류 인구 연간 3만 명 남짓



**平成24年 200万人突破**  
헤이세이 24년 (2012년) 200만 명 돌파





1) 다마가와 원류 대학의 커리큘럼

대상: 전학부, 전교생

1년目: 源流大学基礎コース \* 農山村の自然や文化、農林業を幅広く知る

講義(座学): 源流域の自然、文化、流域のつながり 全15回 毎回テーマ毎による講師を依頼(学内、学外)

実習: 農身体験、森身体験、文化体験、流域課外活動

3回以上 各農家(住民講師)に分かれて各種体験、下流域の団体へ参加

2년目: 源流大学応用コース① \* 테마別学習

実習: 農林業、文化等の学習テーマをこちらから例示、3回以上年間を通して取り組む(日程、回数は住民講師との相談)

畑の手伝い、竹籠編み、物産館メニュー開発...等

3년目: 源流大学応用コース② \* 테마別学習

実習: 学生と相談により学習テーマを設定 3回以上 村内宿泊施設の経営改善、まこもだけの生産販売アシスタント

1학년: 원류 대학 기초 코스 \* 농산촌의 자연과 문화, 농림업을 폭넓게 알기

강의 (좌학): 원류역의 자연, 문화, 유역의 연결고리 총 15회 매번 주제별 강사 의뢰 (학내, 학외)

실습: 농업 체험, 산림 체험, 문화 체험, 유역 과외 활동

3회 이상 각 농가(주민 강사)로 나뉘어 각종 체험, 하류역 단체에 참가

2학년: 원류 대학 응용 코스① \* 테마별 학습

실습: 농림업, 문화 등의 학습 테마를 여기서 예시, 3회 이상 연간에 걸쳐 임함 (일정, 횟수는 주민 강사와의 상담)

밭일 돕기, 대나무 바구니 짜기, 물산관 메뉴 개발 ... 등

3학년: 원류 대학 응용 코스② \* 테마별 학습

실습: 학생과 상담하여 학습 테마를 설정 3회 이상 마을 내 숙박 시설 경영 개선, 마코모버섯 생산 판매 지원

연간 약 1,600명(연인원)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음

17

(2) 원류 대학 10년

① 関係人口の増加: 10万人→30万人

② 源流を活かした活性化事業

定住住宅のあっ旋、源流体験教育

③ ドローンを活用した物流拠点整備

④ 1/2住民制度→村民カード→定住促進

⑤ 全国源流協議会→源流白書刊行→国会議員連盟

① 관계 인구의 증가: 10만 명 → 30만 명

② 원류를 활용한 활성화 사업

정주 주택의 알선, 원류 체험 교육

③ 드론을 활용한 물류 거점 정비

④ 1/2 주민 제도 → 주민 카드 → 정주 촉진

⑤ 전국 원류 협의회 → 원류 백서 간행 → 국회의원 연맹

유역 교류·연계 강화: 유역의 고향  
유역을 의식한 사업 전개

### 5) 원류를 지키기 위하여

1. 源流域を守る→国民の財産を守ること  
→SDGs時代: 持続的な発展のための環境づくり

2. 源流を荒らすと国土が崩壊する→強靱な国土づくり、特に、下流域は死活問題

3. 源流文化の消滅は、循環型社会の形成を解体する

自然資本と共存する知恵の継承→大づくり



源流を守り、源流に育む、豊かな日本→地域再生

1. 원류역을 지키는 것 →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 → SDGs 시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2. 원류를 훼손하면 국토가 붕괴함 → 강인한 국토 조성, 특히 하류역은 사할 문제

3. 원류 문화의 소멸은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해체함

자연 자본과 공존하는 지혜의 계승 → 인재 육성



원류를 지키고, 원류에서 키워내는, 풍요로운 일본 → 지역 재생

### 마치며 (유역 교류·연계의 방향)

1. 流域共生圏: 上下流を理解する→訪れる

2. 流域協働圏: グリーン・インフラ、防災・減災→安心・安全な社会→総参加社会

3. 流域経済圏: 循環型社会の形成: 森林(農)に学び、森林(農)に遊び、森林(農)に暮らす、木を使う: 流域サービス産業(健康・観光・教育)



流域と農を守ることは、ひと・もの・ことづくり

1. 유역 공생권: 상류와 하류를 이해하는 것 → 방문

2. 유역 협동권: 그린 인프라, 방재·감재 → 안심·안전한 사회 → 총참가 사회

3. 유역 경제권: 순환형 사회의 형성: 산림(농촌)에서 배우고, 산림(농촌)에서 놀고, 산림(농촌)에서 생활하고, 나무를 사용함: 유역 서비스 산업(건강·관광·교육)



유역과 농촌을 지키는 것은, 사람·물건·일자리 만들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발표 (発表)

후지타 에츠오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藤田悦生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 ソウル事務所長



미야자키현의 지역 창생 대응 소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2025.11.27

---

1

## 발표 목차

---

1. 미야기현 개요
2. 미야기현의 대응 소개  
농업과 식품 산업이 연계된 식품 밸류 체인
3. 미야기현 내의 대응 사례 소개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4. 마무리

2

# 1. 미야자키현 위치



🚄 도쿄도에서 센다이역까지 고속철도 신칸센으로 1시간 30분 소요

✈ 인천공항 ~ 센다이공항(미야기현) 주 5회 운항  
 🚉 센다이 공항에서 센다이 역까지 공항철도 25분

예로부터 일본 도호쿠 지방의 정치·경제·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교통의 거점으로서 '도호쿠의 관문'이라 불림.

특히 현청 소재지인 '센다이시'는 도호쿠 지역 최대의 인구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정령지정도시임.



3

# 1. 미야기현 개요



- 기초자치단체 수: 35개 (정령지정도시: 1, 시: 13, 읍: 20, 면: 1)
- 인구 225 만명 (도호쿠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현, 전국 16위)
- 면적 7282 km<sup>2</sup> (인구 밀도 307명 / km<sup>2</sup>, 전국 14위)
- 토지이용비율 산림 57%, 농지 17%, 도로 5%, 하천 등 5%, 택지 7%, 기타 9%
- 산업구조 총생산액 9조 2560억 엔(전국 14위)
  - 1차 산업 1525억 엔 ( 1.6% )
  - 2차 산업 2조 4177억 엔 ( 25.4% ) 수산 가공 포함 식품 제조, 고도 전자 기계, 자동차 관련, 기타
  - 3차 산업 6조 9323억 엔 ( 72.9% )
- 고령화율 29.7%
  - ※ 재택 독거 노인(65세 이상) 162,502명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4.7%)

4

# 1. 미야기현 개요



일본 국내 상위 랭킹 품목

< 전국 1위 >

파프리카, 미나리,  
참치류, 은연어, 미역류,  
기러기·큰고니 생식수 등

< 전국 2위 >

대두 수확량, 말라바시금치 수확량,  
가다랑어 어획량 등

쌀, 딸기, 센다이규 (흑모화우) 등도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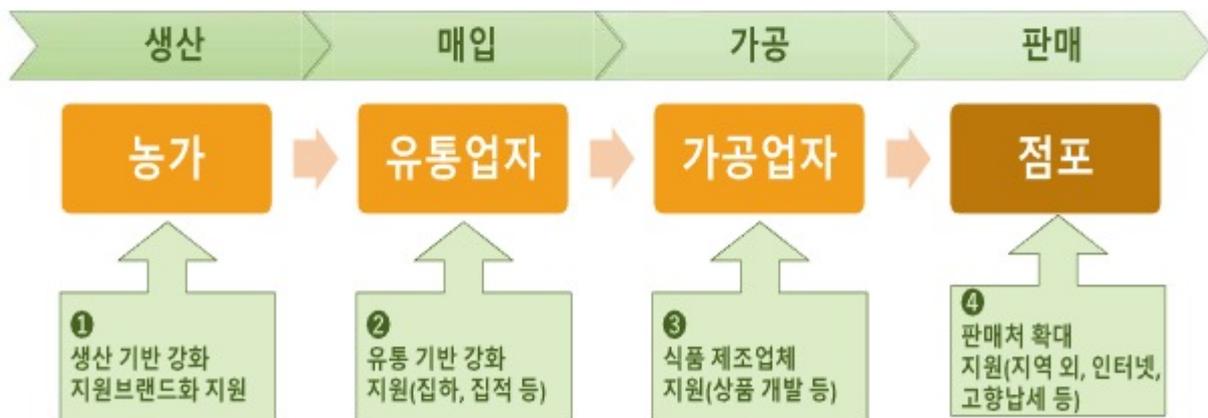
5

# 2. 현의 전략적 지원 전개



## 농업과 식품 산업이 연계된 식품 가치 밸류 체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방법: 브랜드화(지역 이미지 향상), 고부가가치화, 마케팅, 6차 산업화, 식품 제조업 지원(이익 향상))



**지역 내 1차부터 3차까지의 전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는(경영이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 산업 전체가 풍요로워짐(경영 성립⇒지속 가능)

6

## 2. 생산 기반 지원 사례

### 차세대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활용을 통한 전략적 농업 전개

- 1. 다양한 인재 확보 및 육성
  - 여성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 지원
  - 농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 경영 승계 지원
  - 신규 취농자에 대한 기술력·경영력 향상 지원 등

- 2. 선진적 대규모 거점을 핵심으로 한 원예 산지 확립, DX



- 3. 기반 정비와 집적·집약화를 통한 농지 이용의 고도화



7

## 2. 브랜드화 지원 사례

### 미야기현 식품의 부가가치 향상 전개(품질 향상)

- 1. 미야기현의 식품 브랜드화



- 2. 지역 생산, 지역 소비



- 3. 미야기현의 독자 품종 개량  
예) 센다이규의 육질 향상  
⇒ '마블링' 연구 등



8

## 2. 판매처 확대 지원 사례



### 인터넷 판매 지원



9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개요)



■ 도메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의 이즈누마 농산의 우수 사례 (농림수산大臣상 수상 사례)

### 『농업을 식품으로 바꾼다.』

식농 체험 및 가공·판매(직판장) 등의 핵심 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생업기반 조성

① 이즈누마 농산은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로 시작

② 식농 체험 및 도시 농촌 교류

예) 기업의 농업 체험 인턴십  
지역 관광 대응  
도시 농촌 교류 사업 등

③ 농촌의 산업화

(농촌 자체를 산업화하고 경제를 창출함)

참고)

도메시 개요

인구 6만9천명, 면적 536 km<sup>2</sup>

인구밀도 130명 / km<sup>2</sup>

고령화율 37% 초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6명 중 1명이 75세 이상



교류 인구 확대

생업 창출

지방 창생 추진

10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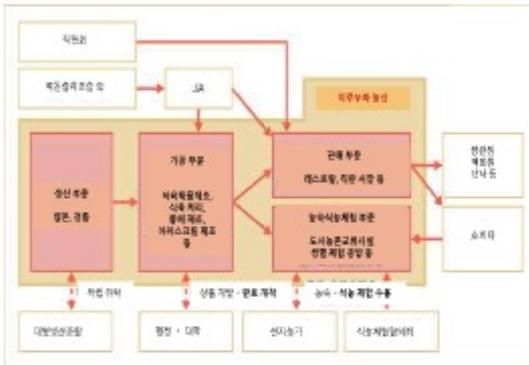


유한회사 이즈누마 농산  
 미야기현 도에서  
 『농업을 식품으로 바꾼다.』  
 식농 체험 및 가공·판매(직판장) 등의  
 핵심 시설



미야기현 도에서 - 이즈누마 농산

비즈니스 모델 - 전체 이미지



출처: 농림수산성 2019년도·2021년도 6차산업화·지역 생산, 지역 소비 우수사례집

#### ■ 대응 사례의 특징과 강점

○1988년 적정 규모의 양돈에 자신들의 손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길을 목표로 창업

○ '농업을 식품 산업으로 바꾼다'는 이념을 내걸고, 햄·소시지 제조 가공장 설치 및 운영 직판장, 레스토랑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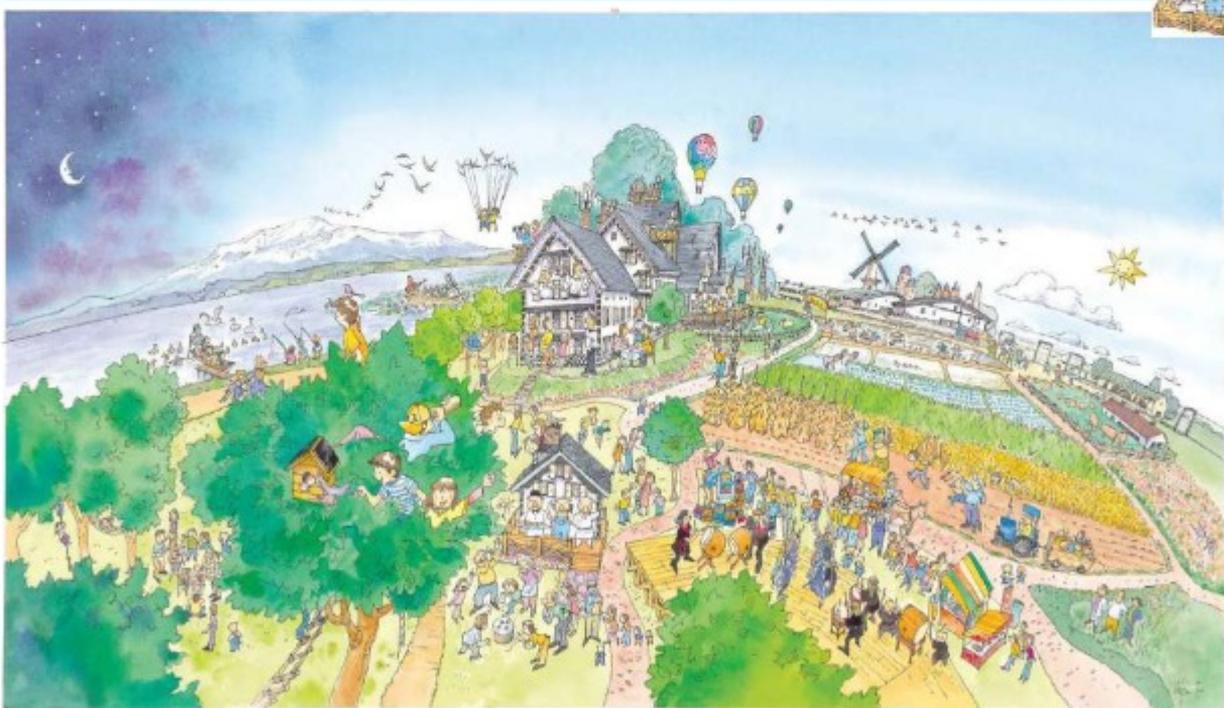
○ 현재 100세대 이상의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브랜드 제품 '다테의 순수 적돼지 이즈누마 햄' 시리즈를 비롯해 약 1000종의 지역 상품을 취급

○ 자연 명소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인 이즈누마를 활용한 관광 및 식생활 교육, 농촌 숙박 등 활동 거점으로 식·농 체험과 도시-농촌 교류도 전개

○ 지역 농가, 대학, 행정기관, JA(농업협동조합), 소매업, 소비자 등과 협력

○ 직판장·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도메를 유명한 관광 명소로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전체 이미지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쿤페루』농장 레스토랑



출처 :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다테의 순수 적돈”를 비롯해 미야기현산 돼지고기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현지에서 생산된 채소 등, 부설 직판장의 식재료를 사용  
현지 신타 지역에서 재배한 명품 쌀 ‘히토메보레’를 사용  
파티나 친목회, 접대, 가벼운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



#### POINT

<특별함이 있는>  
현지 재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용하기 편한>  
사용 형태는 다양하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인상  
또 이용하고 싶어지는  
재방문을 하고 싶도록 만듦.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쿤페루』직판 마켓



출처 :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다테의 순수 적돈 정육, 이즈누마 햄 시리즈의 햄·소시지  
도메시·구리하라시 농가 분들이 자랑하는 신선한 채소와 꽃  
현내산 우유를 사용한 젤라토, 적돈 만두, 반찬 등



지역 상품을 중심으로, 기념품이나 가공품 등의 지역 특산품이 풍부함



#### POINT

<특별함이 있는>  
지역 특산품·명물  
풍부한 진열대(상품)

<이용하기 편한>  
식품이나 일용품도 구입 가능  
선물용 기타 지역 발송도 가능



지역 외부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구매를 위해 방문  
단골로 이어짐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 체험 · 숙박



#### POINT

<특별함이 있는>  
이곳에서만 가능한 체험  
현지 식재료와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나눔

<이용하기 편한>  
시설과 전문 직원이 있음



경험이 없는 사람도,  
도시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본격적인 체험을 편하게,  
안심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권함

15

출처 :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 식생활 교육 · 환경



무농약·무비료 재배 농장을 현장으로 한 식생활 교육·환경 교육(모내기·생물 조사, 버 베기) **온라인에서도 실시**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산책 및 해설



습지 식물을 활용한 천연 염색 체험



공장 견학 · 직장 체험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16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지역이 하나가 된 수용 체계



농업 체험



생산자와 연결되는 바베큐(표고버섯 농가)



궁극의 딸기 찹쌀떡 만들기 체험



시메나와 체험(일본의 전통적인 정월 장식)



향토 요리 체험(절임 만들기)



향토 요리 체험(도메시의 전통 요리 '핫토 스프')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17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지역이 하나가 된 수용 체계



향토 예능 체험



농가 민박



풍토 풋패스



절새 관찰



이즈누마-우치누마 클린 활동



이즈누마 어부 체험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18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교육 여행 · 시찰 연수 (홍보 기사)

**① 벼농사 재배를 주제로 한 플랜**

- (현장 학습 수용 가능 시기: 5월~9월)
- 사전 학습: 생물 다양성과 도메시의 농업 관련
  - 현장 학습: 농업 체험, 생물 조사
  - 사후 학습: 생물 다양성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는 모임



각 학습은 온라인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현지 학교 교류(초·중·고등학교) 관련도 문의해 주십시오.

**② 람사르 협약과 철새를 주제로 한 플랜**

- (현장 학습 수용 가능 시기: 10월~1월)
- 사전 학습: 이즈누마 · 우치누마, 철새 개요
  - 현장 학습: 철새의 비행, 동지 관찰 생태 보호 센터 견학, 환경 보전 활동
  - 사후 학습: 일본 최대 철새 도래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는 모임



이즈누마-우치누마 주변에는 새·담수어-곤충을 주제로 한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철새 활동과 가이드 동반 액티비티(자연·농업·음식 체험)가 풍부합니다. 숙박 장소는 시내의 농가 민박, 간이 숙소 외에도 쿠리하라시, 미나미산리쿠즈 등의 시설 소개가 가능합니다.

**③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화를 주제로 한 플랜**

- (현장 학습 수용 가능 시기: 연중)
- 사전 학습: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역 만들기 개요
  - 현장 학습: 시설 견학,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체험
  - 사후 학습: 지속 가능한 농촌 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는 모임

< 수용 인원 기준 >  
1회당 10~40명(40명 이상인 경우 문의 바랍니다)

< 이런 분께 추천 >

- 일본 농업,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다.
- 졸업 논문이나 졸업 연구의 일환으로 수강하고 싶다.
- 단체 연수로 농업의 부가가치화와 지역 창생을 배우고 싶다.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19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교육 여행 · 시찰 연수 (홍보 기사)

<b>1일차</b>				
~15:30	이즈누마 농산 도착	지역 식사(단체·코스 메뉴 있음)	학교 교류(수업 참관)	학교 교류(동아리 활동 체험)
15:30~18:00	오리엔테이션 · 저녁 식사			
<b>2일차</b>				
10:00~13:00	학교 교류①(시설 견학·조리 체험)	쿠리하라 시내의 숙박 시설	식사 · 공용 공간	싱글룸
14:00~17:00	학교 교류②(수업 참관·동아리 체험)			
18:00~	저녁 식사			
<b>3일차</b>				
9:00~10:00	환경 학습(이즈누마 생물 보호 센터)	환경 학습 시설	향토 요리 체험	미나 다다미 만들기
10:30~13:00	향토 요리 체험 · 점심 식사			
13:30~15:30	공예 체험(미나 다다미)			
16:30~18:30	농원 바베큐			

※ 16일간의 일본 체류 중 3박 4일을 미야기현에서 체류. 학교 교류와 지역 생활 체험, 인근 시정촌과의 협력 제안이 가능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음.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이즈누마(지역)의 풍요로움을 풍부하게 담은  
고부가 가치 상품(고품질+신뢰+스토리+α)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21

### 3. 이즈누마 농산의 대응 사례



가장 중요한 것  
⇒ 사람과의 관계(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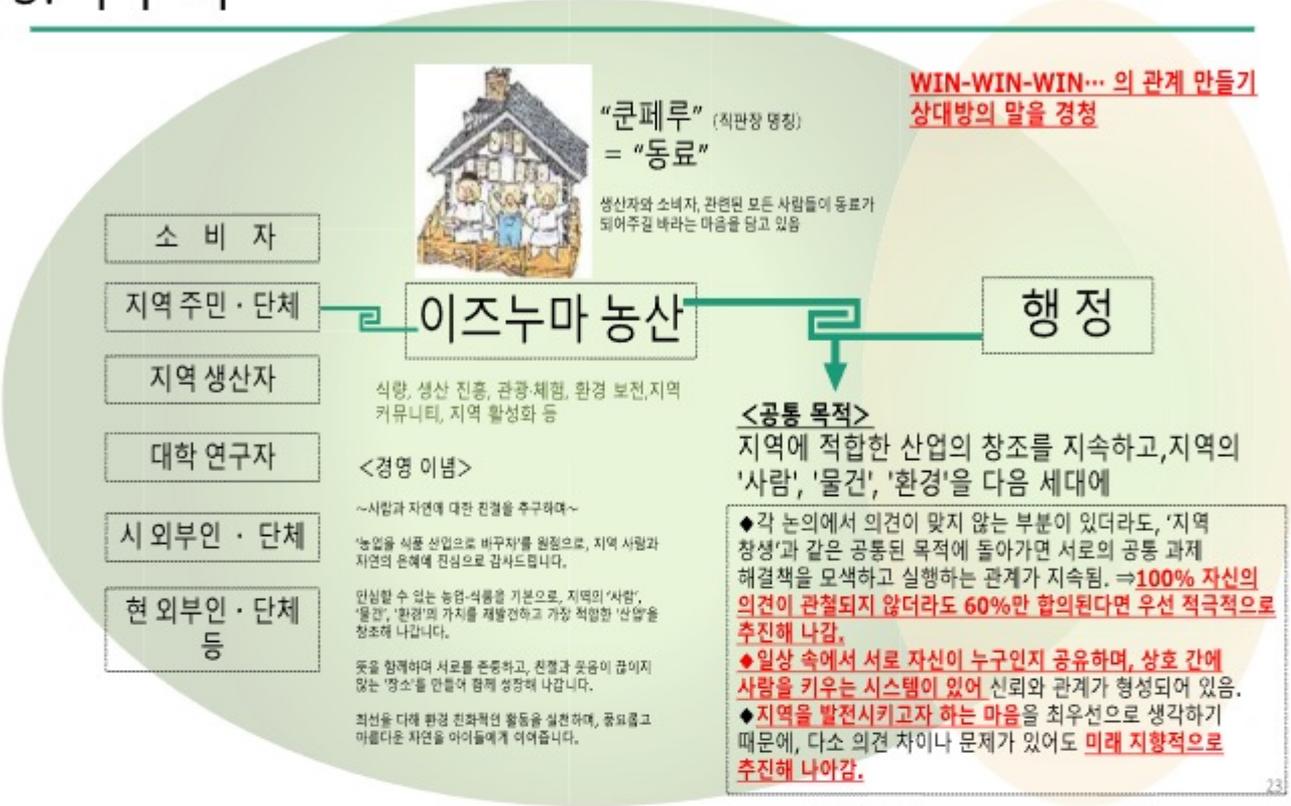


伊豆沼農産 スタッフ 写

출처: 이즈누마 농산 (<https://www.izunuma.co.jp/>)

22

### 3. 마무리



### 4. 전체 정리 (본인의 담당자로서의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

- 농업 생산을 '강점'으로 하는 지역은 생산 지원에 더해 지역 내 유통과 제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1차, 2차, 3차 산업 모두)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부가가치를 창출】**

- 지역의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고 지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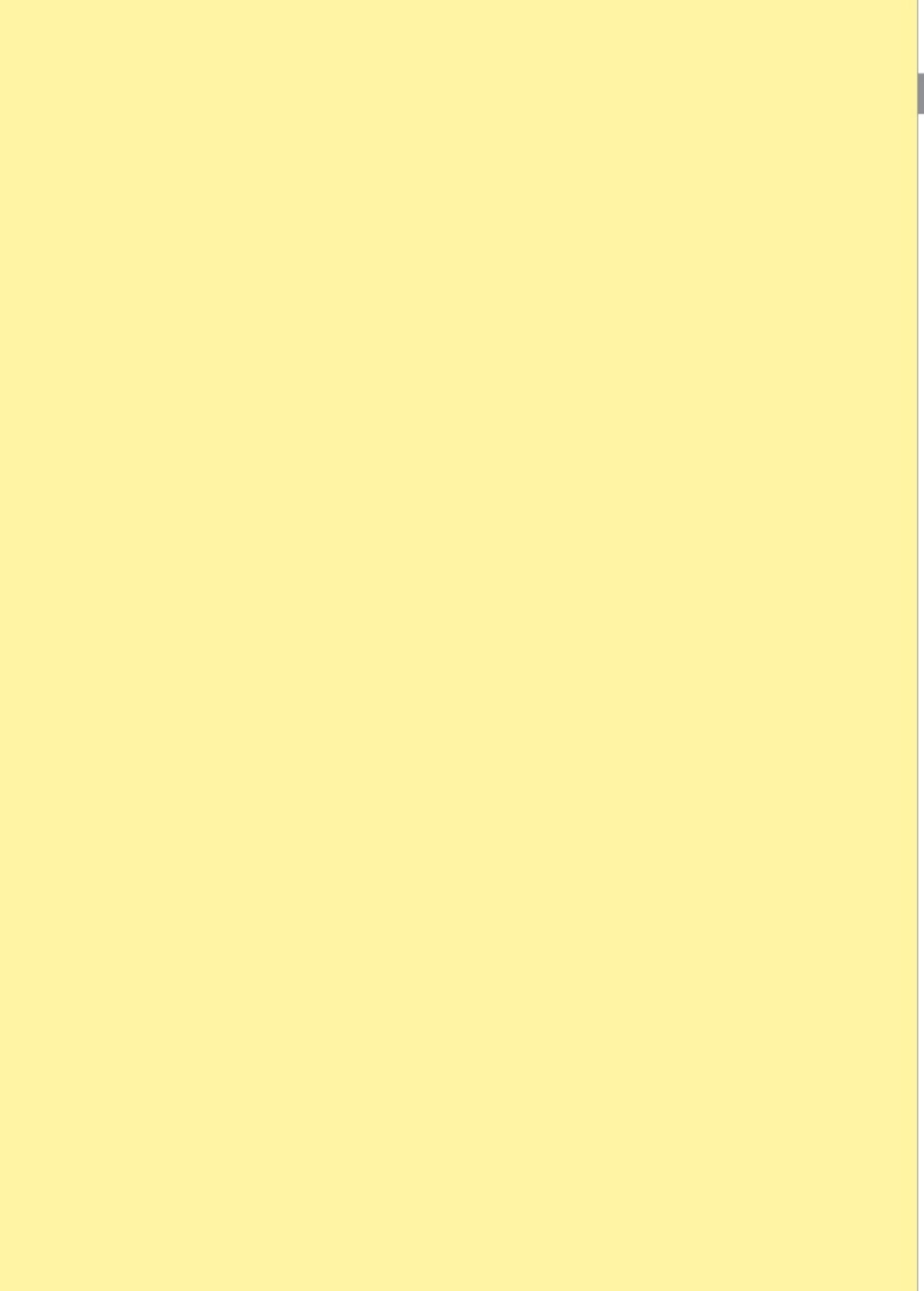
- 기존 유통 경로에 더해 인터넷·오프라인 판매 등과 함께 해외·타 지역에서의 체험을 유도하고 입소문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방문 고객'과 '단골 고객'을 확보한다.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전국에 팬을 확보하면 지역 경영은 유지 가능】**

## 2. 발표 (発表)

후지타 에츠오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藤田悦生 日本自治体国際化協会 ソウル事務所長



宮城県の地域創生の取組紹介  
～農村地域の『なりわいづくり』～

2025.11.27

---

1

## 本日お話しする項目

---

- 1 宮城県の概要
- 2 宮城県の取組紹介  
農業と食品産業が連携した食のバリューチェーン
- 3 宮城県内の取組紹介  
伊豆沼農産の取組から
- 4 まとめ

2

## 1.宮城県 (미야기현) の位置



東京都から仙台駅まで新幹線で1時間30分

仁川空港～仙台空港（宮城県）週5便

仙台空港から仙台駅まで空港鉄道25分

昔から、東北地方の政治・経済・行政の中心として位置づけられ、交通の拠点であり、『東北の玄関口』といわれている。

特に、県庁所在地の『仙台市』は、東北最大の人口と経済規模を誇る政令指定都市である。



3

## 1.宮城県 (미야기현) の概要



- 基礎自治体数 35 (政令指定都市1、市13、町20、村1)
- 人口 225万人 (東北地方では最も人口の多い県、全国16位)
- 面積 7282km<sup>2</sup> (人口密度307人/km<sup>2</sup>、全国14位)
- 土地利用割合 森林57%、農用地17%、道路5%、河川等5%、宅地7%、その他9%
- 産業構造 総生産額9兆2560億円 (全国14位)
  - 一次産業 1525億円 (1.6%)
  - 二次産業 2兆4177億円 (25.4%) 水産加工含む食品製造、高度電子機械、自動車関連、ほか
  - 三次産業 6兆9323億円 (72.9%)
- 高齢化率 29.7%
  - ※ 在宅ひとり暮らし高齢者 (65歳以上) 162,502人  
(65歳以上の高齢者人口に占める割合24.7%)

4

# 1.宮城県 (미야기현) の概要



日本国内のランキング上位のもの

<全国1位>

パプリカ、せり、  
マグロ類、ぎんざけ、わかめ類、  
マガン・オオハクチョウ生息数、など

<全国2位>

大豆収穫量、つるむらさき収穫量、  
カツオ漁獲量、など

米、イチゴ、仙台牛（黒毛和牛）  
なども上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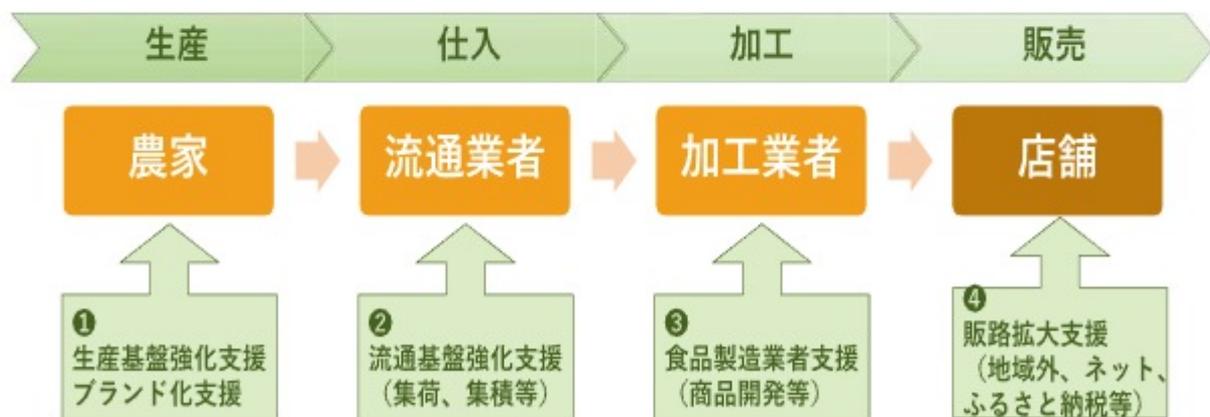
5

# 2.県の戦略的支援の展開



## 農業と食品産業が連携した食のバリューチェーン強化による産業育成

(手法：ブランド化（地域イメージ向上）、高付加価値化、マーケットイン、6次産業化、食品製造業支援（利益向上）)



**地域内の1次～3次の事業者全体が利益を生む（経営が成り立つ）ことを目指す** ⇒ 地域の産業全体が豊かになる（経営成立⇒持続可能）。

## 2.生産基盤支援の例

### 次代の人材育成と革新技術の活用による戦略的な農業の展開

1. 多様な人材の確保・育成
  - 女性農業者の技術力向上支援
  - 農業経営者への経営安定化、経営継承支援
  - 新規就農者への技術力・経営力の向上支援など
2. 先進的大規模拠点を中心とした園芸産地の確立、DX



3. 基盤整備と集積・集約化による農地利用の高度化



7

## 2.ブランド化支援の例

### 宮城県産品の付加価値向上の展開 (品質の向上)

1. 宮城県の食のブランド化
2. 地産地消
3. 宮城の独自品種の改良  
例) 仙台牛の肉質向上  
⇒ 「小ザシ」の研究、等



8

## 2. 販路拡大支援の例



### インターネット販売支援



9

## 3. 伊豆沼農産の取組 (概要)



■ 登米市 (高齢化と人口減少が進む農村地域) における伊豆沼農産の優良事例 (農林水産大臣賞受賞事例)

### 『農業を食業に変える』

食農体験や加工・販売 (直売所) 等の中核施設を起点にした地域のなりわいづくり

① 伊豆沼農産は、地元農産物の加工・販売としてスタート

### ② 食農体験や都市農村交流

例) 企業の農業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  
地域観光の取組  
都市農村交流の取組 等

### ③ 農村の産業化

(農村そのものを産業化し、経済を創出)

参考)

登米市の概要

人口6万9千人、面積536km<sup>2</sup>

人口密度130人/km<sup>2</sup>

高齢化率37%超

3人に1人が65歳以上

6人に1人が75歳以上



交流人口の拡大

なりわい創出

地方創生の推進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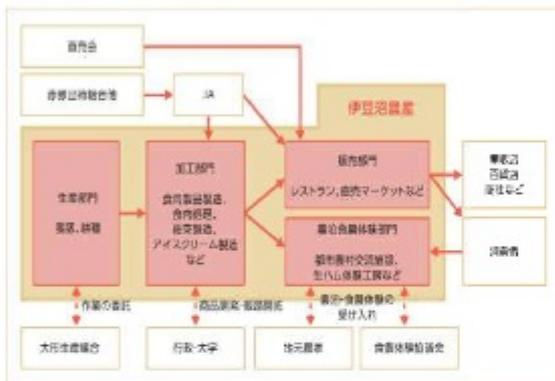
### 3.伊豆沼農産の取組 (概要)



**有限会社伊豆沼農産**  
 ●実店舗×IT  
 「農業を食業に変える」  
 食農体験や加工・販売などの中核施設



ビジネスモデル・連携図



出典：農林水産省 令和元年度・令和3年度6次産業化・地産地消優良事例集

■取組の特徴と強み

○1988年適正な規模の養豚に自分たちの手で付加価値を高めていく道を目指すために創業

○「農業を食業に変える」という理念を掲げ、ハム・ソーセージ作りをする加工場の設置・運営直売所、レストランも運営

○現在、地域の100戸以上の農家と連携し、ブランド品「伊達の純粹赤豚 伊豆沼ハム」シリーズをはじめ、約1000種類の地元商品を取り扱う

○自然の名所ラムサル条約登録湿地である伊豆沼を活用した観光や食育、農泊などの活動拠点に食農体験や都市農村交流も展開

○地元農家、大学、行政、JA、小売業、消費者等と連携

○直売所・レストランを中心に登米の有名スポットに

### 3.伊豆沼農産の取組 全体イメージ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 3.伊豆沼農産の取組 『くんぺる』農場レストラン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伊達の純粹赤豚』をはじめ、宮城県産の豚肉を贅沢に味わえるレストラン  
 地元で採れた野菜など、併設の直売所の食材を使用  
 地元新田地区で育てた銘柄米「ひとめぼれ」を使用  
 パーティーや懇親会、接待、軽なお食事など、幅広い用途で利用可能



#### POINT

- <特別感がある>  
 地元の食材  
 ここでしか味わえない
- <利用しやすい>  
 使用形態は多様  
 子供にもやさしい



良い印象  
 また利用したくなる  
 リピーター化

13

### 3.伊豆沼農産の取組 『くんぺる』直売マーケット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伊達の純粹赤豚の精肉、伊豆沼ハムシリーズのハム・ソーセージ  
 登米市・栗原市の農家さん自慢の新鮮お野菜やお花  
 県内産牛乳を使用したジェラート、赤豚豚まん、惣菜など

地域の商品を中心に、お土産や加工品などの地場産品が充実



#### POINT

- <特別感がある>  
 地元の食材・名物  
 充実した棚 (商品)
- <利用しやすい>  
 食品や日用品も買える  
 ギフトの地方発送も可能



地域外の人でも買いに来る  
 地域内の人でも買いに来る  
 リピーター化する

14

### 3.伊豆沼農産の取組 体験・宿泊



#### POINT

<特別感がある>  
 ここだけの体験  
 地元の食材や資源を使って  
 家族や仲間と共有できる

<利用しやすい>  
 施設や専門スタッフがいる



未経験者でも、  
 都市からの参加でも  
 本格的な体験を  
 気軽に、安心して  
 参加し、楽しめる

強く記憶に残る  
 ⇒家族や友達にも伝える

15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 3.伊豆沼農産の取組 食育・環境



無農薬・無肥料栽培圃場をフィールドにした食育・環境教育（田植え・生物調査、稲刈） **オンラインも実施**



ラムサール条約登録湿地の散策・解説



湿地の植物を活用した草木染め体験



工場見学・職場体験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16

### 3.伊豆沼農産の取組 地域一体となった受け入れ体制



農業体験



生産者をつながるBBQ (しいたけ農家)



究極のいちご大福もちづくり体験



しめ縄体験 (日本の伝統的な正月装飾)



郷土料理体験 (漬物づくり)



郷土料理体験 (登米市の伝統料理「はっとスープ」)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 3.伊豆沼農産の取組 地域一体となった受け入れ体制



郷土芸能体験



農家民泊



風土フットパス



渡り鳥観察



伊豆沼・内沼クリーン活動



伊豆沼 漁師体験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 3.伊豆沼農産の取組 教育旅行・視察研修 (PR記事)

#### ①稲作栽培をテーマにしたプラン

- (現地学習の受入可能時期：5月～9月)
- ・事前学習：生物多様性と登米市の農業について
  - ・現地学習：農業体験、生きもの調査
  - ・事後学習：生物多様性と農業を持続可能にするため、自分たちができること検討会



各写真はオンラインでの配信が可能。現地の学校交流（小・中・高校）についてもご相談ください。

#### ②ラムサール条約と渡り鳥をテーマにしたプラン

- (現地学習の受入可能時期：10月～1月)
- ・事前学習：伊豆沼・内沼、渡り鳥の概要
  - ・現地学習：渡り鳥の飛び立ち、ねぐら入り観察  
サッカリアセンター見学、環境保全活動
  - ・事後学習：日本一の渡り鳥飛来地の今後について、自分たちができること検討会



伊豆沼・内沼周辺には、鳥・淡水魚・昆虫をテーマにした展示施設があります。また、清掃活動やガイド付きアクティビティ（自然・農業・食体験）が豊富です。宿泊場所は市内の農家民泊、簡易宿所のほか、粟原市、南三陸町などの施設紹介が可能です。

#### ③地域資源の付加価値化をテーマにしたプラン

- (現地学習の受入可能時期：通年)
- ・事前学習：農業の6次産業化、地域づくりの概要
  - ・現地学習：施設見学、地域住民が主役になる体験
  - ・事後学習：持続可能な農村産業をつくるため、自分たちができること検討会

<受入人数の目安>  
1回あたり 10～40名（40名以上のご相談ください）

<こんな方におすすめ>

- ・日本の農業、環境保全に興味がある
- ・卒業論文や卒業研究の一環として受講したい
- ・団体研修で農業の付加価値化や地域創生を学びたい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19

### 3.伊豆沼農産の取組 教育旅行・視察研修 (受入例)

1日目	
～15:30	伊豆沼農産 到着
15:30～18:00	オリエンテーション・夕食
2日目	
10:00～13:00	学校交流①（施設見学・調理体験）
14:00～17:00	学校交流②（授業参観・部活体験）
18:00～	夕食
3日目	
9:00～10:00	環境学習（伊豆沼サッカリアセンター）
10:30～13:00	郷土料理体験・昼食
13:30～15:30	ものづくり体験（ミニ畳）
16:30～18:30	農園パーベキュー



※16日間の日本滞在のうち、3泊4日を宮城県で。学校交流と地域の暮らし体験、近隣市町村の連携提案ができたのが決め手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20

### 3.伊豆沼農産の取組



一番大切なこと⇒伊豆沼(地域)のめぐみをふんだんに取り入れる  
価値の高い商品 (高品質+信頼+ストーリー+α)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21

### 3.伊豆沼農産の取組



一番大切なこと  
⇒人とのつながり



10月30日  
12:00～18:00  
11.3  
おためしセット  
生ハム

宮城県仙台市から東京70kmに広がる、伊豆沼。東北産物の産地開拓は、日本最大級の取り組みを断りとして存在です。今人々の関心を集める産地の中で伊豆沼は最も注目されています。みなさまのおかげです。これからも産地の専門的な知識を全国の皆様にお届けいたします。



伊豆沼農産 スタッフ 様

出典：伊豆沼農産 (<https://www.izunuma.co.jp/>)

22

### 3.まとめ



### 4.全体のまとめ

- 農業生産を『強み』とする地域は、生産支援に加え、地域内の流通、製造を強化することで、地域内の産業（一次、二次、三次の全て）が成長する可能性が高い。

【地域を生かして高い付加価値をつけていく】

- 地域のできるだけ多くの事業者が関わり、地域全体が成長できるシステムを、地道に、継続的に育てていくことが、結果的に成長する可能性が高い。

【みんなが、小さな成功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が重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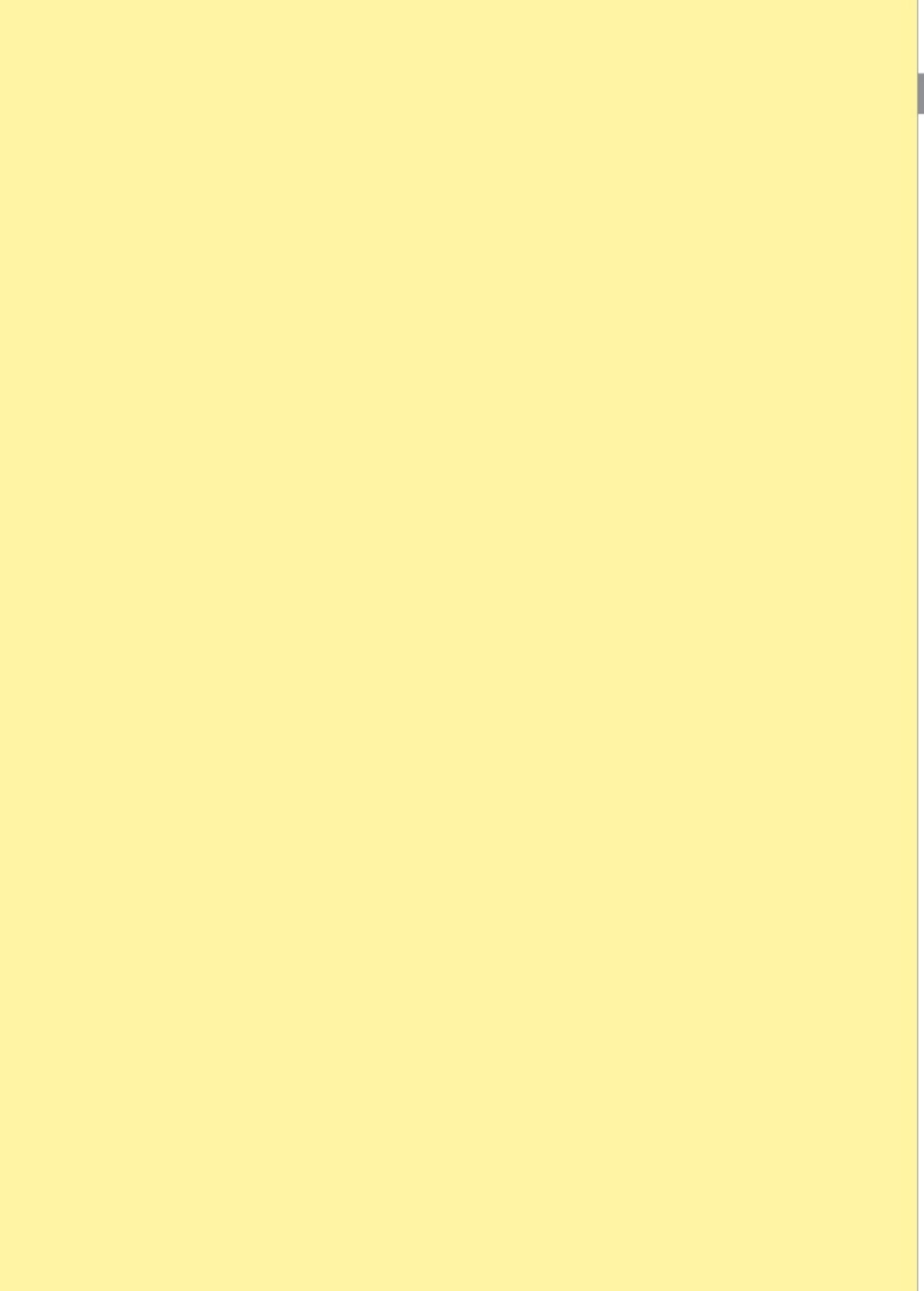
- 通常の販路に加え、インターネット・リアル販売等とともに、海外・県外の体験誘客と口コミにより、広い範囲で『リピーター』『顧客』を獲得。

【大ヒットでなくても、全国にファンをつくれれば、経営は成り立つ】

### 3. 발표 (発表)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ヤン・ウォンタク 韓国地方行政研究院 人口減少地域対応センター長



인구감소·지방소멸 시대,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포럼(11/27)

2025.11.27.

##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  
양원탁 부연구위원

### 목 차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3.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4.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  
강원특별자치도를 횡성군을 중심으로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3.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4.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I.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고조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심화하면서 지역 단위 인구활력 전략 요구 증가

▣ 한국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

- 2020년을 시작으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작
- 2019년 12월 수도권의 인구는 50%를 돌파

▣ 지역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논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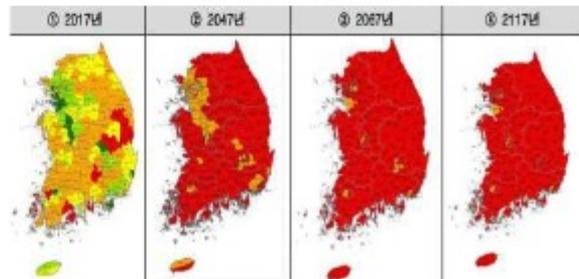
- 소멸 고위험 지역: 12개(2017) → 221개(2117)
- 국가 단위 저출산 대응으로 인구감소 대응 한계

〈인구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자료: 통계청(파이낸셜뉴스, 2020.6.29, 복지타임즈, 2021.12.09 재인용)

〈장래 소멸 위험지역 추이에 대한 분석 사례〉



자료: 김사원(2021),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1(지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 2.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2023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활력 지표로서 생활인구 개념이 새롭게 도입

▣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 기반 정책의 한계와 주소지와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불일치 문제
-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자료: 시사위크(2023)

-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 3. 생활인구의 개념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주민등록, 체류, 외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산정

인구감소시대 인구활력 관점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개념 도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2항 및 시행령 제2조1항)

-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인구)
  - 2)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류인구)
    - 행정안전부 고시 :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 머무른 사람(1일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 3)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등록외국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3호)

- 생활인구 산정은 인구감소지역(89개)를 대상으로 산정
- 생활인구의 산정주기는 1개월 주기로 산정

I.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4. 생활인구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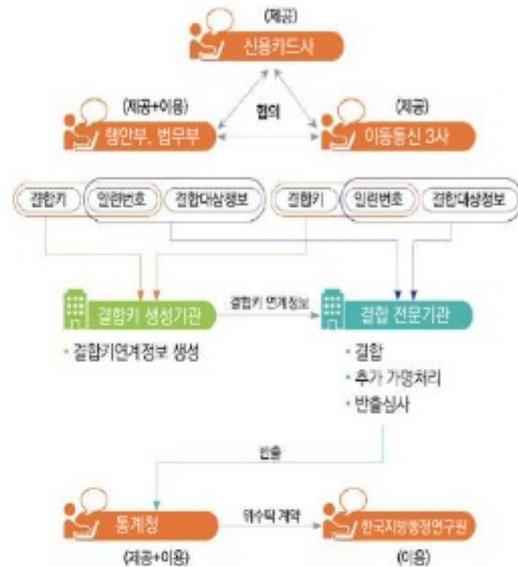
생활인구는 행정과 민간데이터(통신·카드·신용평가)의 가명결합을 통해 산정되어 매분기 월별자료 공표

▣ 생활인구의 산정

- 주민정보(행안부)와 등록외국인정보와 국내거소신고자료(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SKT, KT, LGU+), 신용카드사(신한, 삼성, BC, 하나), 신용평가정보(KCB) 직업 등의 빅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산출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함

- |      |   |
|------|---|
| 체류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자료(행안부)</li> <li>✓ 외국인등록부 및 국내거소신고자료(법무부)</li> <li>✓ 통신 3사 모바일 자료, 신용카드, KCB 직업정보</li> </ul> |
| 등록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통계, 등록외국인 자료</li> </ul>  |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  
강원특별자치도를 횡성군을 중심으로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3.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4.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II. 생활인구의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1. 시기별 인구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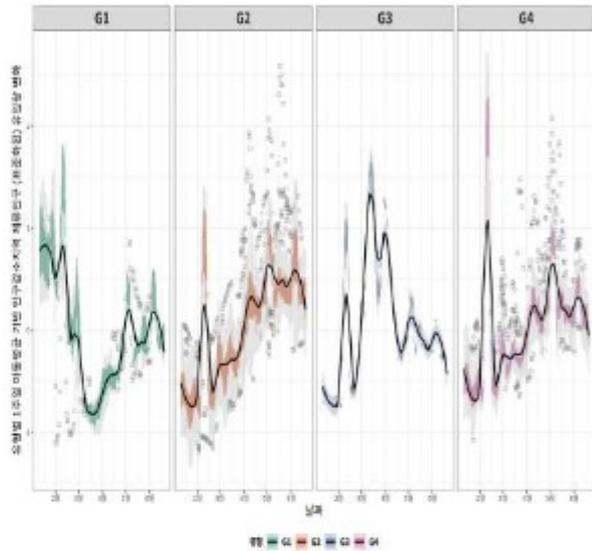
생활인구의 유입 및 유출량의 변동 특성은 시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

■ 시기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출입량 특성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
- 각 지역에서는 시기별 생활인구의 유출입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인구활력 전략 수립 필요

유형	주요 특성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그룹 1 (5개)	주요 겨울 관광지 (1-2월 집중, 4월 이후 회복)	강원 태백, 경상, 청진, 화천, 전북 무주
그룹 2 (38개)	증가추세 (일년내 변동, 4-6월 편차가 40%)	...
그룹 3 (2개)	주요 봄 관광지 (3-4월 집중, 이후 감소)	전남 구례, 경남 하동
그룹 4 (44개)	증가추세 (일년내, 5월과 8월)	...

자료: 이원도 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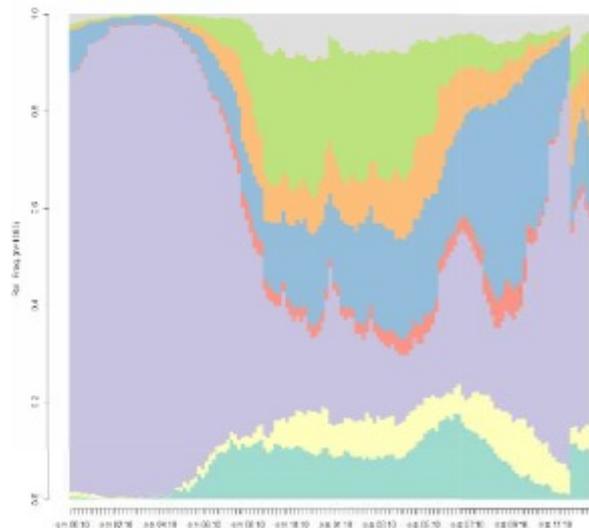
\* 통계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4년도 1-6월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II.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2. 개인의 일상생활 패턴 반영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별 거주·체류인구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 특성을 반영

■ 개인의 연쇄적인 활동의 반영

- 개인의 일상생활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묶음(예: 개인정비-이동-업무-개인정비 등)으로 구성
- 주간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는 일,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개인정비가 주된 활동
- 또한, 일상생활은 거주지 뿐만 아니라 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목적지에서 수행되고 있음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체류하는 개인의 연쇄적인 활동의 특성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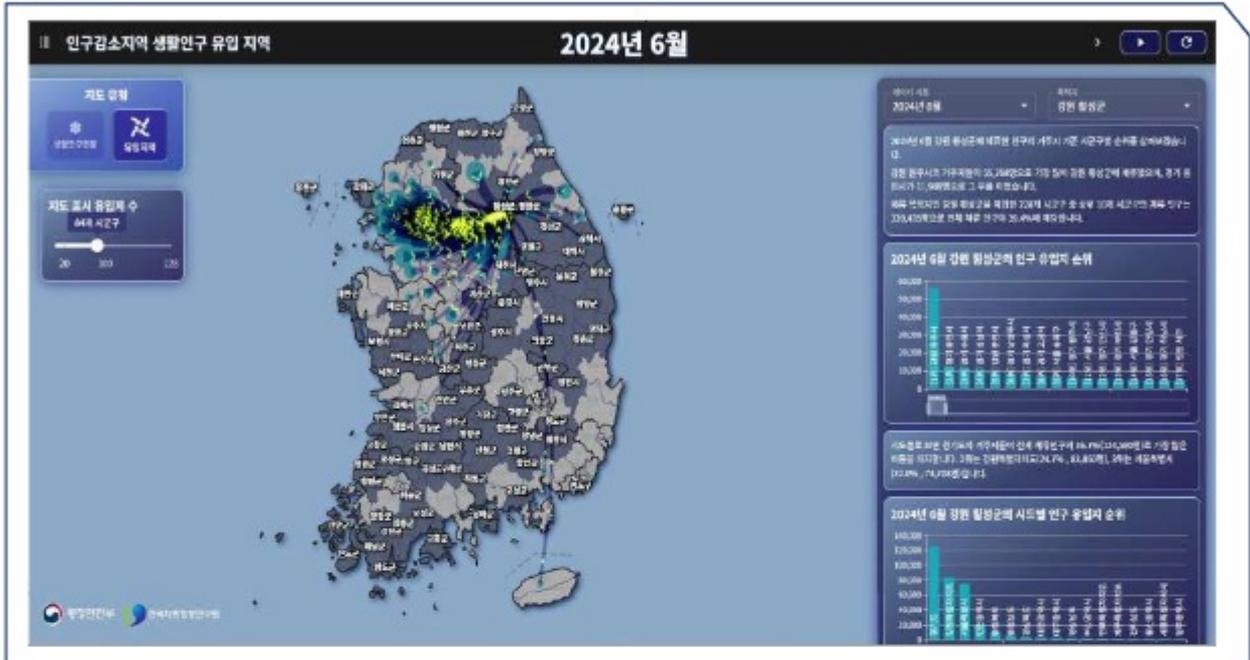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9)

\* 10분 단위로 기입한 연쇄적인 활동의 불일치성 분석(discrepancy analysis)결과를 시각화 하였음.

II.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3. 인구의 공간적인 흐름 반영

생활인구는 지역간 유출입 특성을 바탕으로 인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근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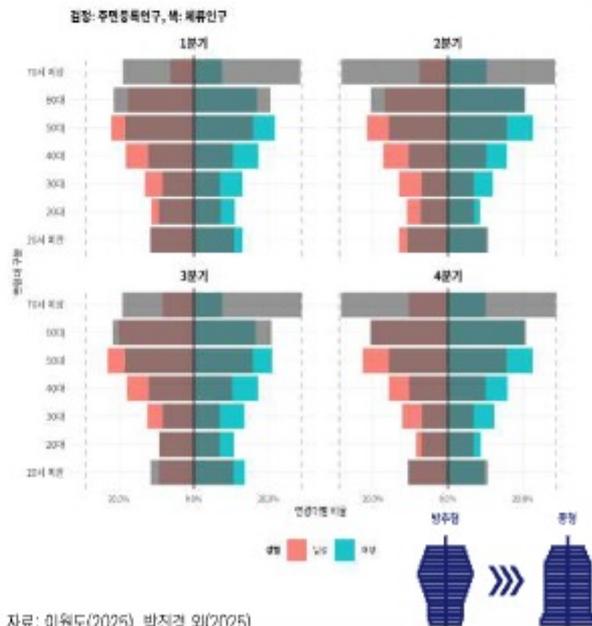


II.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4. 생활인구의 구조: 성, 연령별 특성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청년층 성수인구를 보완하고, 체류인구 특성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공급 기여

인구구조 측면의 생활인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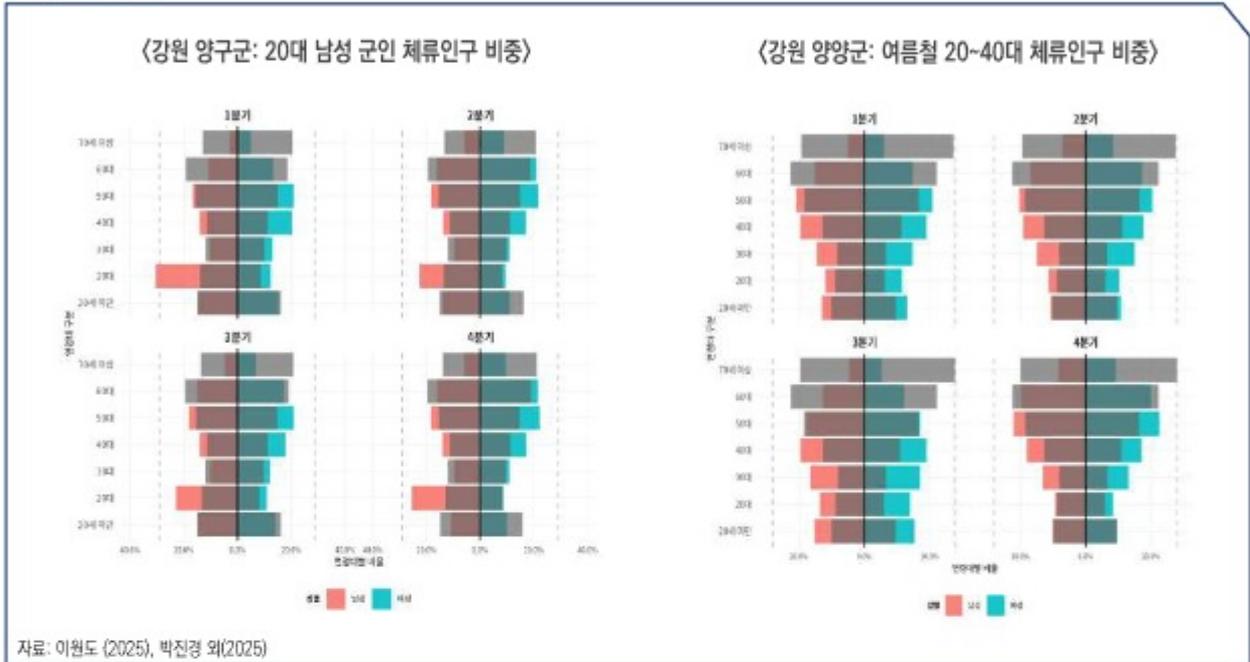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구조는 청년과 중장년 인구가 부족한 특성
-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20~50대 인구를 보완
- 인구감소지역의 청년과 중장년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 생활인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연령 대별 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생활서비스 공급 가능



II.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4. 생활인구의 구조: 성, 연령별 특성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청년층 성수인구를 보완하고, 체류인구 특성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공급 기여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  
강원특별자치도를 횡성군을 중심으로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
3.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Ⅲ.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1.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특성

'24.12월 기준 강원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256만 명(등록인구 대비 6.6배), 타시도 거주자 81% 차지

▣ 강원 12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 '24년 12월 기준, 강원 12개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구는 256만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5.4배 수준
- 체류인구 중 타시도 거주자 비중 81.3% 차지

〈강원 생활인구 특성('24. 4분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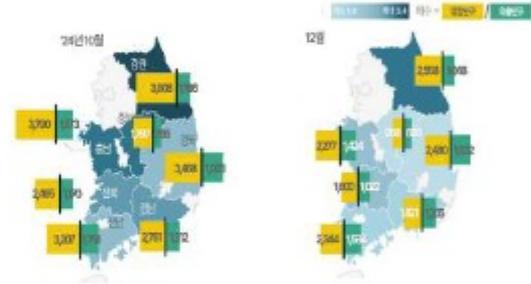
〈시도별 타시도 거주자 비중('24.12.)〉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자료: 통계청(2025.6.26.)



Ⅲ.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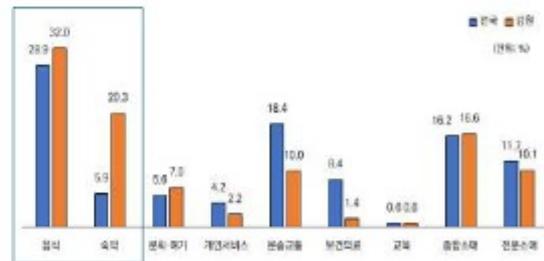
1.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특성

강원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은 40대 이하, 음식·숙박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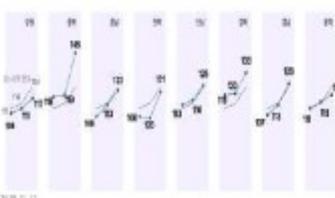
▣ 강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특성

- '24년 12월, 강원지역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강원은 40대 미만 체류인구의 카드소비액과 음식과 숙박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체류인구의 업종별 카드사용액 비중(2024.12.기준)〉



〈시도별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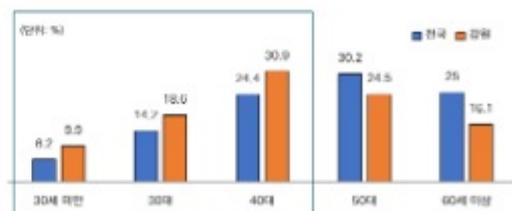


〈체류인구의 카드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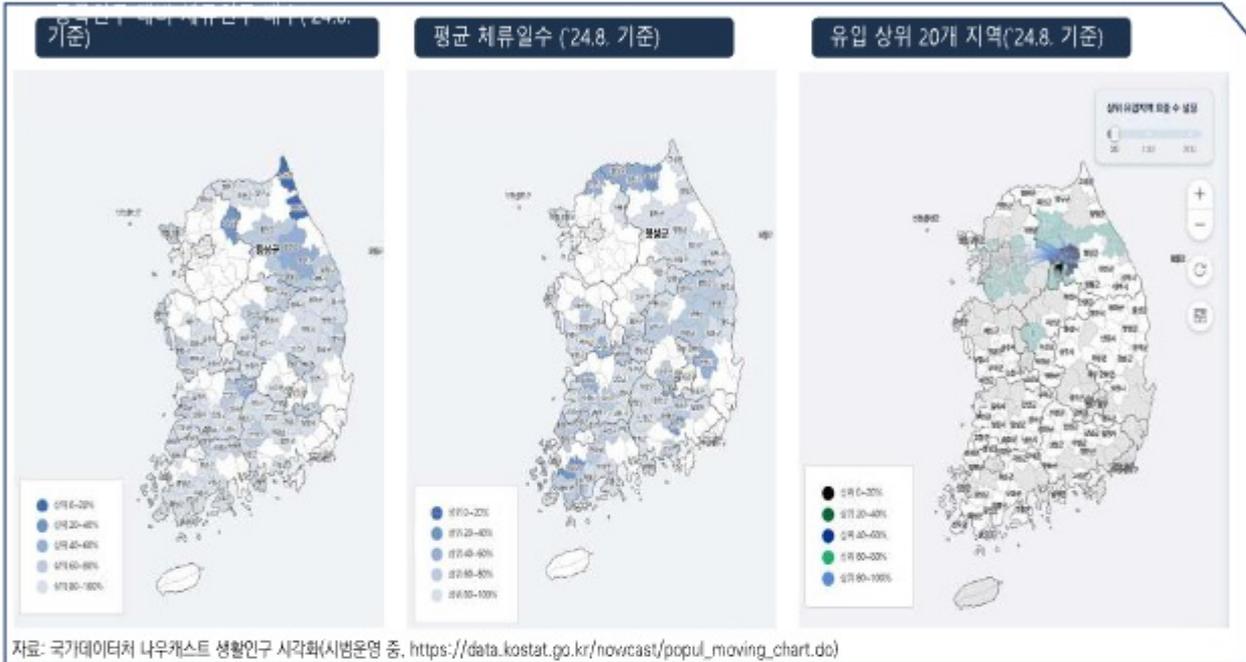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5.6.26.)

〈연령대별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 비중(2024.12.기준)〉



Ⅲ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2.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

강원 횡성군의 2024년 월평균 체류인구는 약 31만 명이며, 등록인구 대비 6.4배로 규모는 큰 편



Ⅲ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2.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

횡성군은 여름 휴가철에 웰리힐리 리조트를 중심으로 체류인구가 집중되고 재방문율은 높지 않음

### 횡성군 생활인구 현황

- 강원 횡성군 체류인구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 45만 명으로 집중되며, 주요 방문지점은 워터파크·스키장 등 위치한 웰리힐리파크
- 체류인구는 40~50대(41.5%), 20~30대(20.6%) 등 젊은 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 유입인구가 60% 이상을 차지
- 인구간소지역 평균(5.2배) 대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자료: 유소연 외(2025), 통계청(각 분기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생활인구 유형	입상력 소비체류형	지역여건 유형	관광형
생활인구 현황 (24년 1~9월 평균)	내국인	46,285(296.6%)	체류인구	312,291명
	외국인	1,629(83.4%)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6.5배
	연령비율	등록인구 10.8% (20~30대 14.8%, 40~50대 27.2%)	외국인 47.2%	
	체류인구	20.6% (20~30대 20.6%, 40~50대 41.5%, 60이상 23.7%)		
	기간별 체류인구비율	75.3% (1~9월 18.9%, 10~12월 2.9%)		
	타시도 체류인구 비율	74.9%	평균체류시간	12.14일
	지역별 체류인구 비율	31.2%	평균체류일수	2.9일
	1인당 소비액(1~9월)	410,720원/체류일	1인당 소비액(1~9월)	127,810원/체류일
	업종별 체류인구 비율	7.0% (숙박업 30.9%, 47.2%, 1.4%)		
	1인당 GDP(1~9월)	41,046천원	등록인구(24년)	11.9%
노후주택 비율(20년 이상)	22.9%	대학 재학생수(23년)	1,570명	
업종별 종사자 비율(23년)	1.5% (숙박업 47.0%, 51.9%)			
지역여건 현황	1위 도·소매업		325개	(18.9%)
	2위 숙박·음식점업		320개	(18.0%)
	3위 제조업		277개	(16.1%)
	주요 관광자원 (인구 10만 이상)	횡성수목원 179,566명    관동·영동·횡성삼재 22년 3.7%	삼프스대경CC 140,832명    교동삼교정(23년) 12.4km	횡성수목원(23년) 136,441명    고죽도보IC 14.2km
	최종 인포와 수(2025)	320명 0개 0.4%	16개 24명 17개 16%	21개

Ⅲ.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2.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

생활권 연계·협력을 통해 횡성군의 다양한 생활인구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필요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  
강원특별자치도를 횡성군을 중심으로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 생활인구 데이터의 특성
3. 강원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과 대응 방향
4.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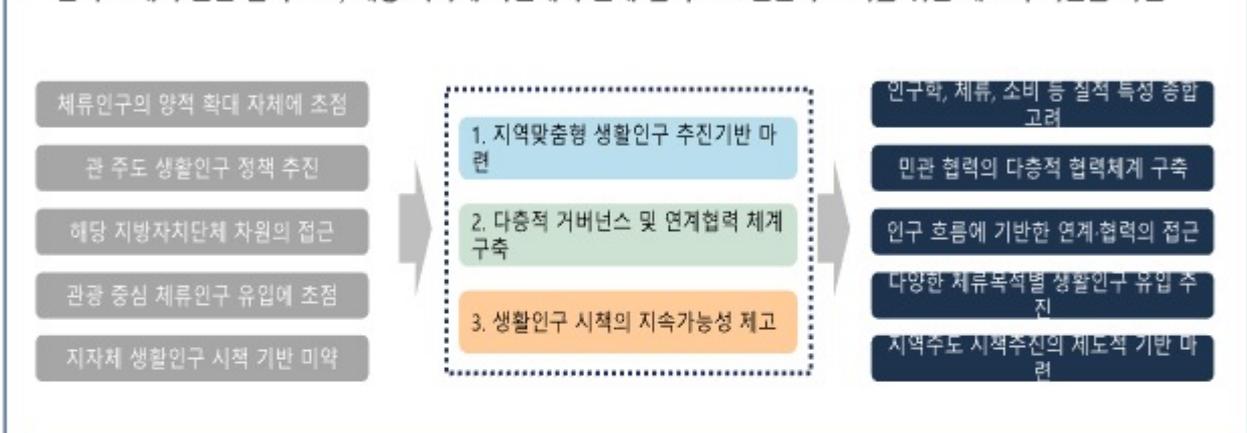
IV.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1. 정책 방향의 전환

**단순 관광 체류인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의 인구활력 전략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 전환

- 생활인구의 양적 유입을 넘어 인구·체류·소비 등 질적 특성에 기반한 인구활력 증진 전략으로 전환
-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연계·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IV.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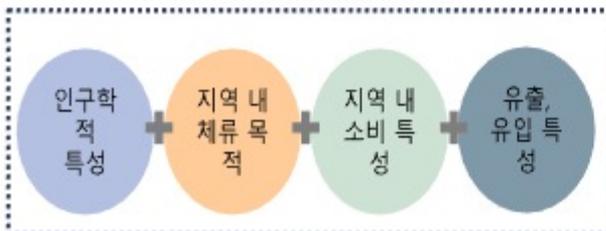
2. 맞춤형 인구활력 증진시책 발굴 및 추진

**지자체 자원에서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기반과 타겟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책 추진 기반 마련**

▣ 지자체 내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인구감소지역별 다양한 생활인구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지자체 생활인구 담당자 지정 및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육/워크숍, 경진대회 개최 등 검토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데이터 접근 방향〉



▣ 생활인구 맞춤형 시책 발굴 및 추진

- 지역별 생활인구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사업부서 참여 생활인구 TF 운영, 생활인구 등록제 통한 타겟별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TF 운영 사례(전북특별자치도)〉



자료: 전라일보(2025.5.7.)

IV.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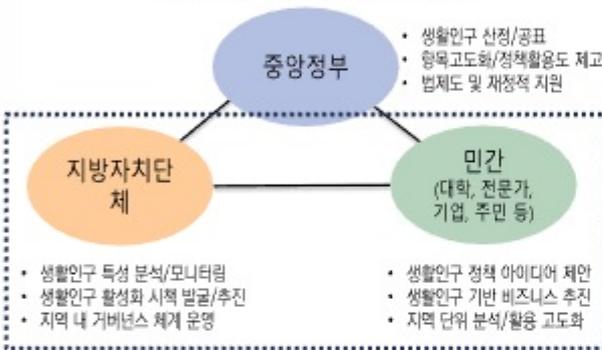
3. 거버넌스 및 지역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인구활력 증진을 목표로 생활인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구 흐름에 기반한 연계협력 시너지 창출

▣ 생활인구 기반 지역 인구활력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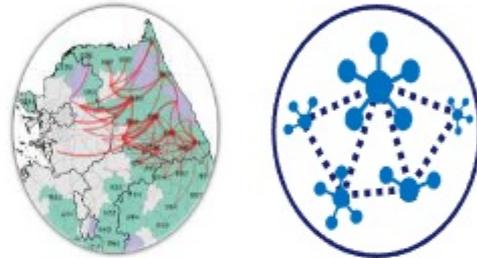
- 지역 인구활력 증진을 목표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활인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 인구의 흐름에 기반한 연계협력 활성화

- 지역간 인구 흐름 및 상호연계성에 기반하여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한 실질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 상호연계성에 기반한 SOC 및 생활·편의서비스 공급과 기능 분담, 지역간 협력/상생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자료: Ha et al.(2024). OECD 홈페이지

IV.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언

4. 생활인구 시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수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계 단계를 고려한 정주인구화 전략 추진

▣ 지자체 생활인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원 양양군('24.7.19.), 홍천군('25.7.25.) 제정
- 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인구 시책 추진의 기반 확립

〈생활인구 활성화 참고조례(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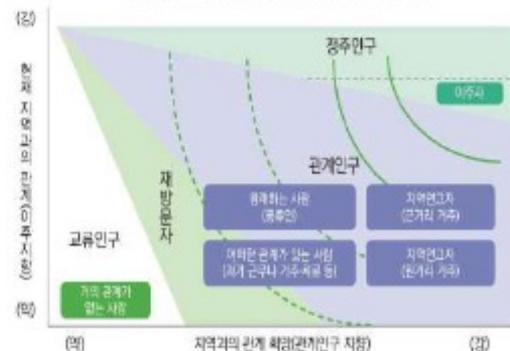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생활인구" 및 "생활사군 구명"에 대한 정의
제3조목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정 시정구명사업의 범위
제4조다른 조례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 규정에 따름
제5조기본계획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6조사업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 추진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각종의 사업 추진
제8조다른 조례	내국인 및 외국인에 신청하는 경우 생활사군 구명으로 등록
제9조다른 조례	다제일생활인구 또는 유서한 종류로 인정 가능
제10조다른 조례	등록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생활사군 구명에게 공공사업,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가능
제12조(행정정보보호)	생활사군 구명 등록 과정에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제13조(연구 구축)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 모색에 힘써 구축
제14조(사무 위탁)	생활인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무위탁 가능
제15조(모선)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상
제16조(시행규칙)	조례 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8.26.)

▣ 관계 단계에 근거한 정주인구화 전략 추진

- 관계의 단계(단순교류, 재방문, 관계인구, 정주인구)별 특성을 고려한 정주인구화 전략 추진

〈지역과 관계성에서 본 관계인구의 형태〉



자료: 熊崎直(2018). これからの移住 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소영·김도영, 2021 재인용)

## 참고문헌

- Ha, H. J., Lee, Y., Kim, K., Park, S., & Lee, J. (2024). Spnaf: An R package for analyzing and mapping the hotspots of flow datasets.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https://doi.org/10.1177/23998083241276021>
- 이원도 외. (2023). 인구감소지역 원인 분석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수탁용역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외. (2024). 생활인구 작성을 위한 연구 (통계청 수탁용역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2024).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인구의 도입. 지방자치정책 Brief,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소연 외. (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總務省(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 이소영·김도형. (2021). - 하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25.6.26.). '24년 4/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8.26.). 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 이원도. (2025).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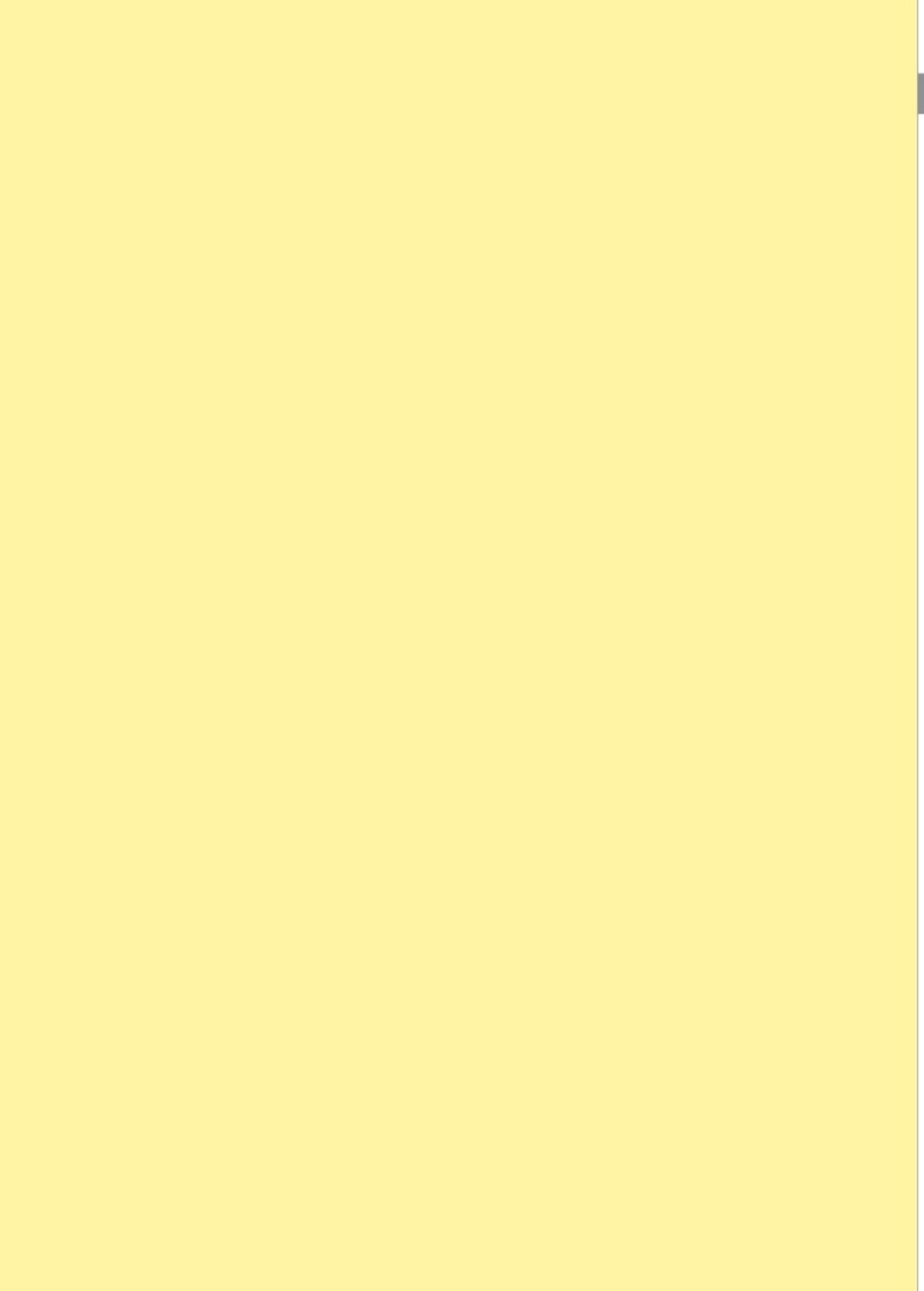
# 감사합니다 .



### 3. 발표 (発表)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ヤン・ウォンタク 韓国地方行政研究院 人口減少地域対応センター長



人口減少・地方消滅時代、住民主導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11/27)

2025.11.27.

#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を中心に

韓国地方行政研究院 地域均衡発展室  
ヤン・ウオンタク副研究員

## 目次

1.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特性と対応策
4.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  
活力向上戦略：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を  
中心に

1.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特性と対応策
4.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I.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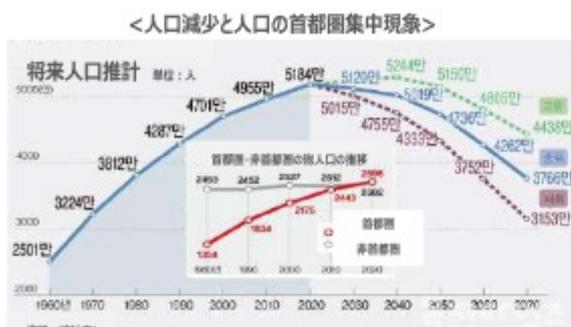
1. 人口減少と地方消滅の危機の高まり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を中心に

人口減少と首都圏集中により地方消滅危機問題が深刻化する中、地域単位の人口活力戦略への需要が増加

▣ 韓国の人口減少と首都圏への集中が深刻化

- 2020年を起点に韓国の総人口減少が始まる
- 2019年12月、首都圏の人口は50%を突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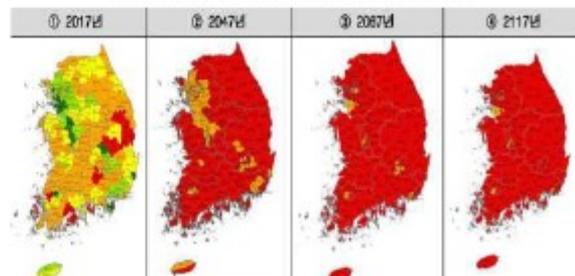


資料：統計庁 (フィナンシャルニュース, 2020年6月29日, 福祉タイムズ, 2021年12月9日再引用)

▣ 地域レベルでの人口危機対応に関する議論が拡大

- 消滅リスクの高い地域：12地域 (2017年) → 221地域 (2017年) 国単位の少子化対策では人口減少への対応に限界

<将来消滅危険地域の推移に関する分析事例>



資料：監査院 (2021), 「人口構造変化対応の実態1 (地域)」に関する監査結果報告書

I.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概念の導入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2023年の人口減少地域特別法の施行により、地域の人口活力指標として生活人口の概念が新たに導入

■ 生活人口概念の導入

- ・ 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定住人口基盤政策の限界と住  
所地と実際の活動が行われる地域のミスマッチ問題
- ・ 実際の地域で活動する人口の詳細な特性を反映した  
オーダーメイド型人口活力戦略策定の基礎資料
- ・ 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施行（2023年1月1日）



< 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第5条（生活人口の拡大支援） >

- ① 国および地方自治体は、人口減少地域内の生活人口を拡大するため、  
必要な支援施策等を策定・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地方自治体は、条例で定める方法に従い、生活人口に対してこの法律  
に基づく施策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

資料：時事ウイーク(2023)

5

I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3. 生活人口の概念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生活人口は、人口減少地域に居住または滞在する住民登録人口、滞在人口、外国人人口を対象に算出

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人口活力の観点から、新たな人口概念である「生活人口」概念を導入  
（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第2条第2項および施行令第2条第1項）

- ・ 生活人口とは「特定の地域に居住または滞在しながら生活を営む者」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いう。
  - 1) 「住民登録法」第6条第1項に基づき住民として登録した者（住民登録人口）
  - 2) 通勤、通学、観光、休暇、業務、定期的な交流などの目的で特定地域を訪問し滞在する者、大統領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者（滞在人口） - 行政安全部告示：滞在回数が月1回以上滞在した者（1日間の滞在時間の合計が3時間以上、月1回以上）
  - 3) 外国人のうち、大統領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者（登録外国人）

生活人口の詳細要件などに関する規定（行政安全部告示第2023-33号）

- ・ 生活人口の算定は人口減少地域（89地域）を対象に算定
- ・ 生活人口の算定周期は1か月周期で算定

6

I.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4. 生活人口の算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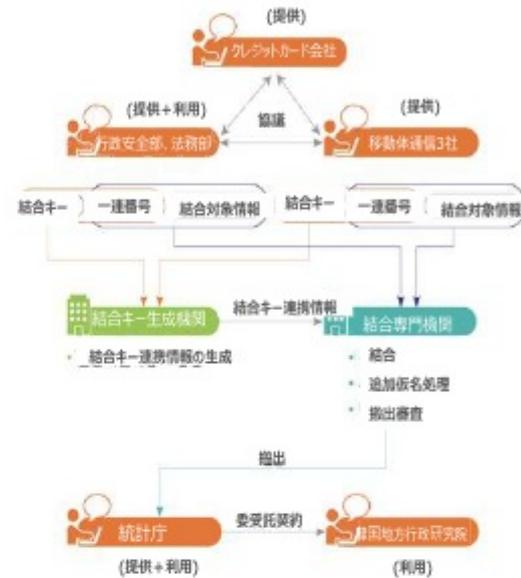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生活人口は行政と民間データ（通信・カード・信用評価）の仮名結合を通じて算定され、四半期ごとに月別データを公表

生活人口の算定

- 住民情報（行政安全部）と登録外国人情報と国内居所申告資料（法務部）、移動体通信会社データ（SKT, KT, LGU+）、クレジットカード会社（新韓、三星、BC、ハナ）、信用評価情報（KCB）職業などのビッグデータを仮名結合\*して算出
- \* 仮名情報は、個人情報の一部または全部を削除・置き換えるなどの仮名処理を通じて、追加情報なしでは特定の個人を識別できない情報を意味し、仮名処理過程で生成される追加情報は原則として放棄する。

- |      |  |
|------|--|
| 滞留人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住民登録資料（行政安全部）</li> <li>✓ 外国人登録簿および国内居所届出資料（法務部）</li> <li>✓ 通信3社のモバイルデータ、クレジットカード、KCB職業情報</li> </ul> |
| 登録人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住民登録統計、登録外国人データ</li> </ul>  |



7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  
活力向上戦略：江原特別自治道横城  
郡を中心に

1.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特性と対応策
4.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II.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1. 時期別の人口の変動性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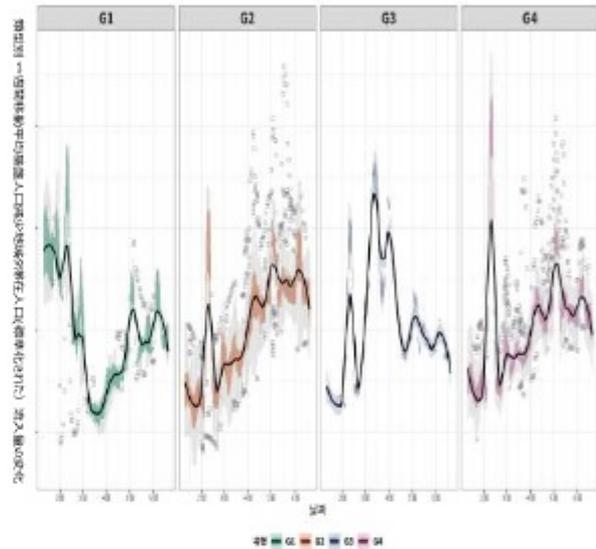
生活人口の流入および流出量の変動特性は時期によって人口減少地域によって差異が発生

■ 時期別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特性

- ・ 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の流入・流出量の特性は時期と地域によって差異を示す。
- ・ 各地域では時期別の生活人口の流入・流出特性に基づいた持続可能な人口活力戦略の策定が必要である。

類型	主な特性	人口減少地域自治体
グループ1 (5)	主な冬の観光地 (1~2月に集中、4月以降に分散)	江原道太白、平昌、旌善、華川、全羅北道茂朱
グループ2 (38)	増加傾向 (1日正月連休のピーク、4~6月は変動が大きい)	...
グループ3 (2)	主な春の観光地 (3~4月に集中、その他は減少)	全羅南道求礼、慶尚南道河東
グループ4 (44)	増加傾向 (1日正月連休、5月上旬のピーク)	...

資料：イ・ウォンド他 (2024)。



\* 統計庁の内部資料を活用し、24年度1~6月を対象に実施

9

II.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2. 個人の日常生活パターンを反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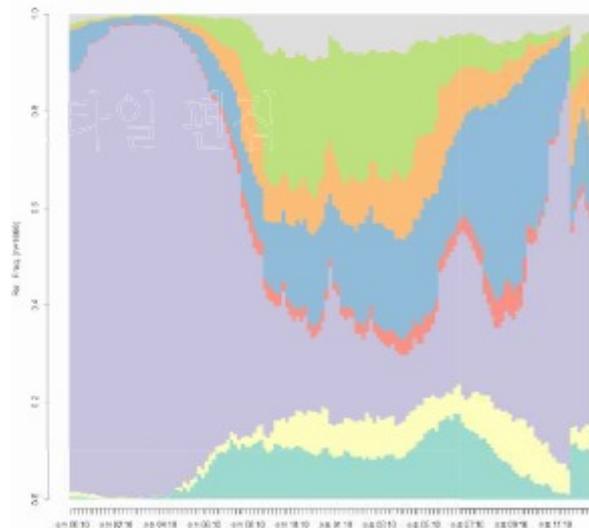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生活人口は人口減少地域別の居住・滞在人口が参加する多様な社会・経済的活動の特性を反映

■ 個人の連鎖的な活動の反映

- ・ 個人の日常生活は連鎖的に行われる活動の束 (例：個人整備-移動-業務-個人整備など) で構成される。
- ・ 日中時間帯 (午前9時~午後5時) には仕事、夜間時間帯 (午後10時~翌日午前6時) には個人整備が主な活動である。
- ・ また、日常生活は居住地だけでなく活動参加のための様々な目的地で遂行されている。
- ・ 生活人口は人口減少地域に居住・滞在する個人の連鎖的な活動の特性を反映している。



資料：統計庁生活時間調査 (2019)

\* 10分単位で記入した連鎖的な活動の不一致性分析 (discrepancy analysis) の結果を可視化したもの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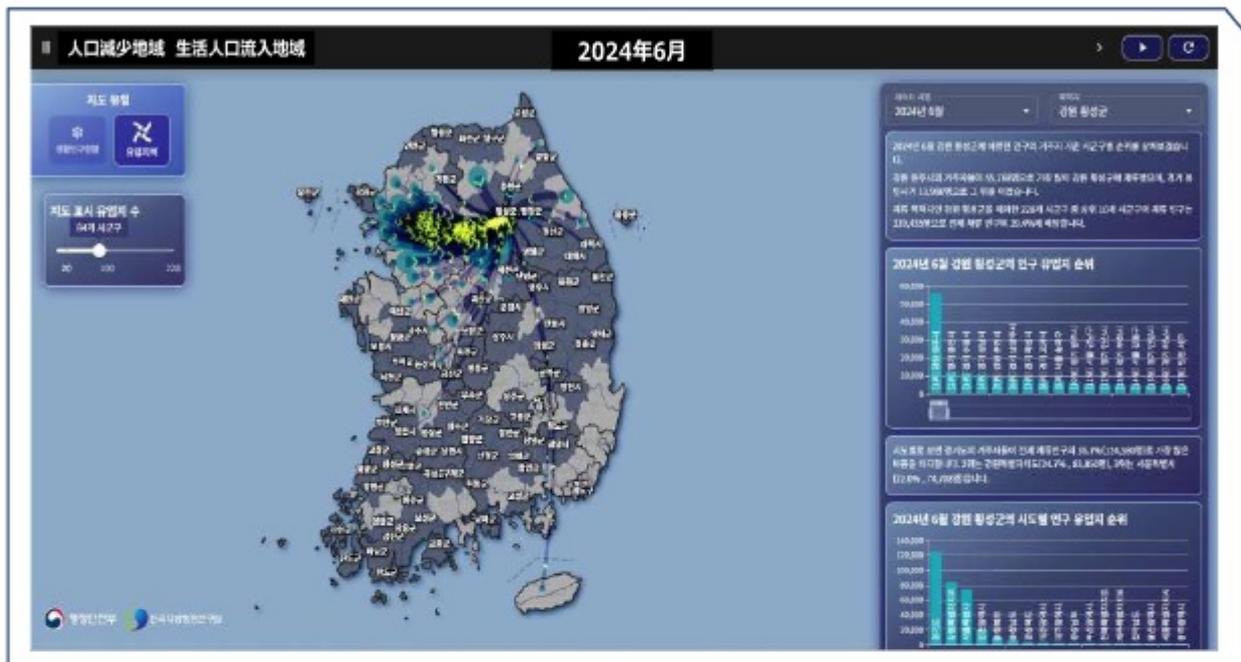
II.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人口の空間的な流れを反映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生活人口は地域間の流出入特性に基づき、人口流動に基づく実質的な連携・協力の根拠を提供



11

II.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4. 生活人口の構造：性別・年齢別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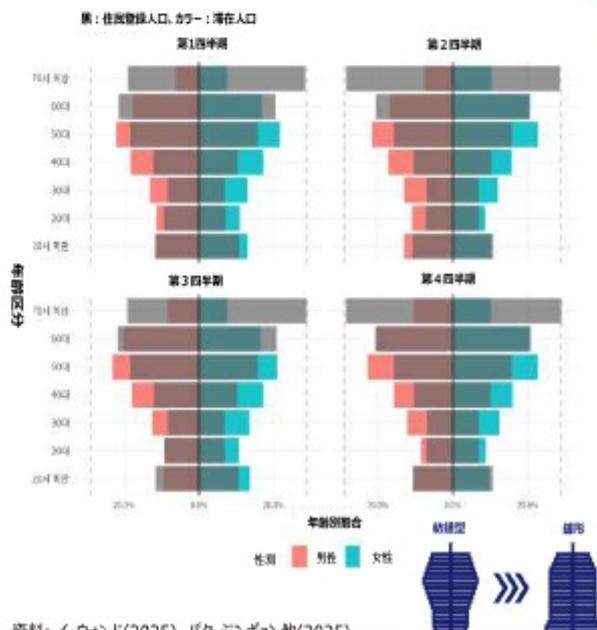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人口減少地域の不足する若年層の定住人口を補完し、滞在人口の特性に基づいたカスタマイズ型サービスの提供に貢献

□ 人口構造の観点からの生活人口の特性

- 住民登録人口を基準とした人口減少地域の人口構造は、若年層と中高年層が不足する特性を持つ。
- 滞在人口を含む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は、同地域で不足する20~50代人口を補完する。
- 人口減少地域の若年層・中高年層を対象とした生活サービスの供給と維持管理の観点からも重要な意味を持つ。
- 生活人口を通じて、人口減少地域の実質的な年齢層別サービス需要に基づいた生活サービスの供給が可能となる。



資料：イ・ウォンド(2025)、박·진경(20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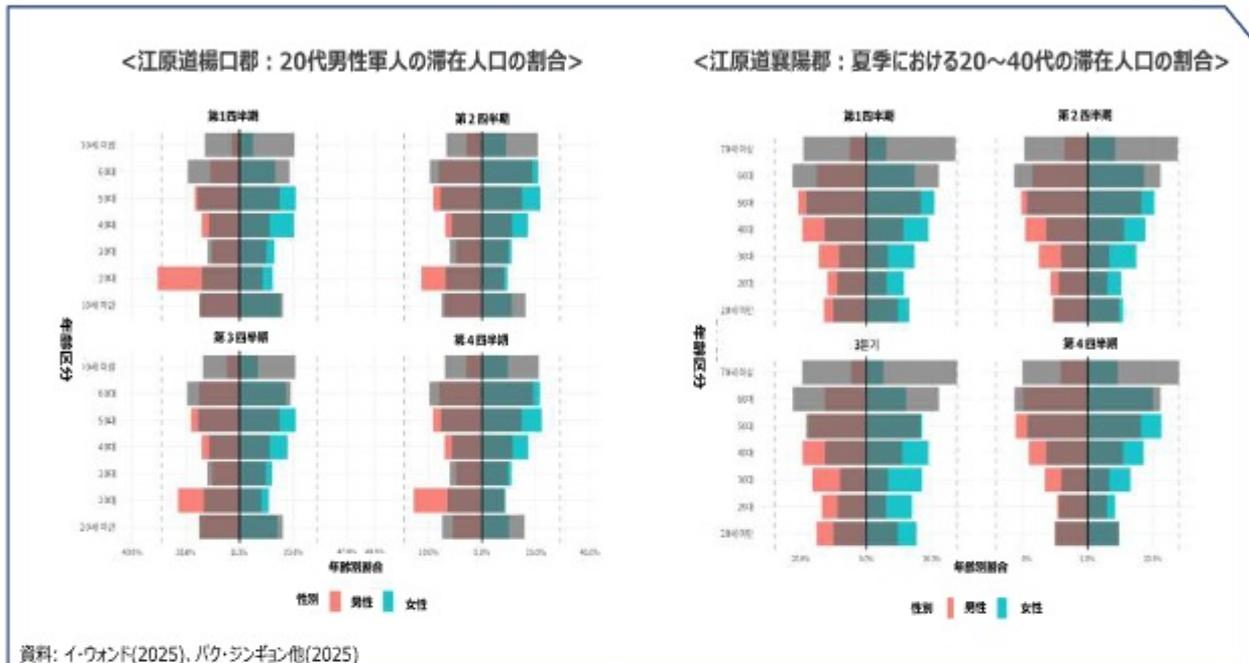
Ⅱ.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4.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人口減少地域の不足する若年層の定住人口を補完し、滞在人口の特性に基づいたカスタマイズ型サービスの提供に貢献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  
活力向上戦略：江原特別自治道横城  
郡を中心に

1.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特性と対応策
4.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Ⅲ.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と対応策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1. 江原特別自治道の生活人口の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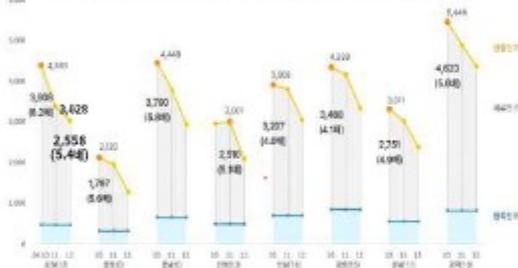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陸中心に

2024年12月基準、江原道における人口減少地域の滞在人口は256万人(登録人口比6.6倍)、他市道居住者が81%を占める。

▣ 江原道12の人口減少地域における生活人口の現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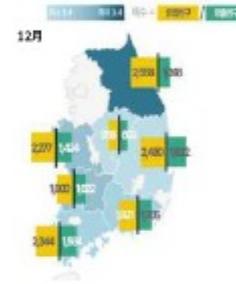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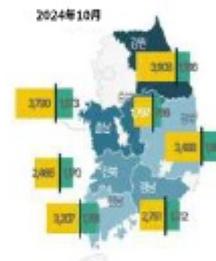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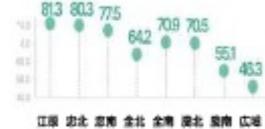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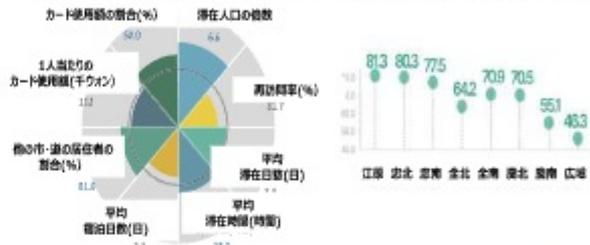
- 2024年12月現在、江原道12の人口減少地域の滞在人口は256万人で、登録人口の5.4倍の水準
- 滞在人口のうち他市道居住者の割合は81.3%を占める。

<都道府県別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規模>



資料：統計庁（2025年6月26日）

<江原道生活人口特性(2024年第4回半導平均)> <市道別他市道居住者の割合(2024年12月)>



15

Ⅲ.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と対応策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1. 江原特別自治道の生活人口の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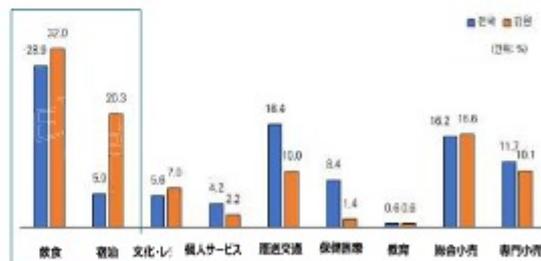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陸中心に

江原道の人口減少地域における滞在人口のカード利用額は、40代以下、飲食・宿泊業の割合が相対的に高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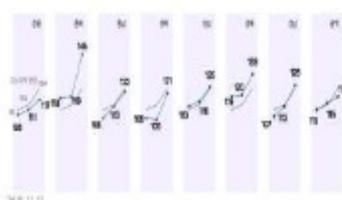
▣ 江原道の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消費特性

- 2024年12月、江原地域の滞在人口1人当たり平均カード使用額は11万7千ウォンで比較的低い水準
- 江原は40代未満の滞在人口のカード消費額と飲食・宿泊業種が占める割合が比較的大き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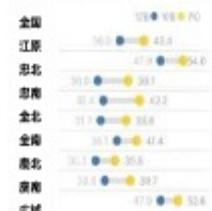
<滞在人口の業種別カード利用額の割合(2024年12月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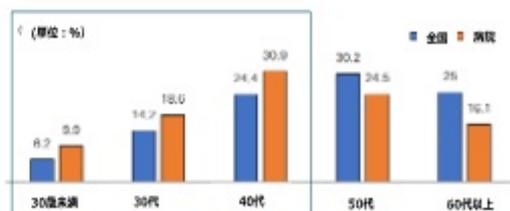
<市道別他市道居住者の割合(2024年12月)>



<滞在人口のカード利用の割合>



<年齢層別滞在人口のカード利用額の割合(2024年12月基準)>



資料：統計庁（2025年6月26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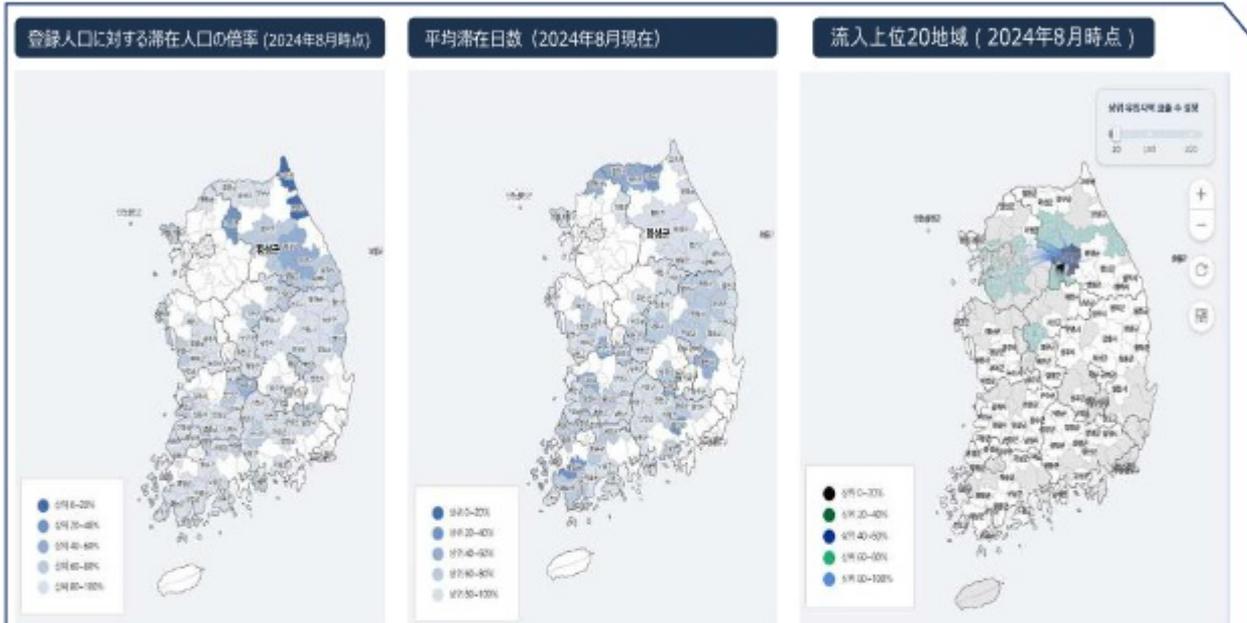
Ⅲ.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と対応策

2. 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江原道横城郡の2024年月平均滞在人口は約31万人であり、登録人口の6.4倍で規模は大きい方である。



資料：国家データ処理ナウキャスト生活人口可視化 (試験運用中、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moving\_chart.do)

Ⅲ.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と対応策

2. 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横城郡は夏の休暇シーズンにウェリヒリリゾートを中心に滞在人口が集中し、再訪問率は高くない。

横城郡生活人口の現状

- 江原道横城郡の滞在人口は夏のバカンスシーズンである8月に45万人が集中し、主な訪問地点はウォーターパーク・スキー場などが位置するウェリヒリパークである。
- 滞在人口は40～50代(41.5%)、20～30代(20.6%)など若年層の割合が相対的に高く、首都圏からの流入人口が60%以上を占める。
- 人口減少地域の平均(5.2倍)と比較すると、登録人口に対する滞在人口の規模は大きいものの、滞在人口の再訪問率は低い傾向にある。



資料：ユン・ソヨン也 (2025)、統計庁 (各四半期報道資料)

江原特別自治道 横城郡	生活人口の集計	日間的消費滞在	地域経済の集計	観光型		
登録人口	内国人	46,287(99.6%)	滞在人口	312,201名		
	外国人	1,629(3.4%)		6.5倍		
年齢割合	登録人口	20代 10.8% 30代 14.8%	40代 27.2% 50代 47.2%			
	滞在人口	20代 14.2% 30代 20.6%	40代 41.5% 50代 23.7%			
現況 (2024年 1~9月平均)	韓国別滞在人口の割合	76.3%	平均滞在期間	12.14日		
	再訪問率(1, 6, 9ヶ月)	31.2%	平均滞在日数	2.9日		
1人当たりの消費額(2024年)	1人当たりの消費額(2024年)	410,720円/月(平均)	1人当たりの消費額(2024年)	27,810円/月(平均)		
	業種別売り上げ額(2024年)	宿泊 7.1% 文化・レジャー 30.9%	飲食・小売 47.2%	医療・教育 1.4%		
1人当たりのGRDP(2024年)	1人当たりのGRDP(2024年)	41,092円/日	財政自立率(2024年)	11.9%		
	若年世帯の割合(2024年)	22.9%	大学在学生の数(2024年)	1,531名		
異種別従事者の割合(2024年)	1次産業	1.8%	2次産業	47.0%	3次産業	51.8%
	1次	観光・小売業	325名	(18.9%)		
	2次	宿泊・飲食店業	320名	(18.6%)		
地域経済の現況 (2024年)	3次	製造業	272名	(16.1%)		
	観光客の消費先	ウェリヒリパーク 170,568名	観光客団体/団体客(2024年)	3.7%		
観光客の消費先 (2024年)	アルプスステーション 140,832名	交通アクセス	高速道路IC	12.6km		
	横城湖遊覧(5区間) 30,449名	交通アクセス (2024年)	高速鉄道	14.2km		
医療・インフラの数(2024年)	総合病院 0名	済生院 16名	公共保健 177名	その他 217名		

Ⅲ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と対応策

2. 横城郡の生活人口の特性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生活圏の連携・協力を通じて、横城郡の多様な生活人口の需要に合致するサービスの効果的な提供が必要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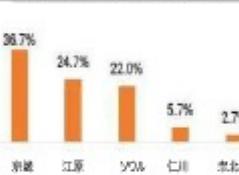
横城郡生活人口政策の方向性

- ・ 高齢層の定住人口、首都圏30～40代の観光滞在人口、原州市の通勤滞在人口など生活人口ターゲット別の需要を考慮した戦略が必要
- ・ 夏季休暇シーズンにおけるウェリヒリリゾート中心の一時的な訪問が、四季を通じて多様な活動に基づき再訪問に結びつくよう対策が必要
- ・ 生活圏を形成する原州市と連携協力を通じ、生活人口の多様な需要に応えるサービスの効果的な提供方法が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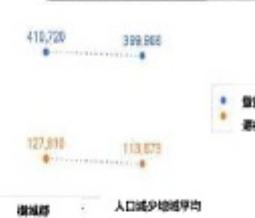
滞在人口流入地(市町村) (上位5、2024.6基準)



滞在人口流入地(市道) (上位5、2024.6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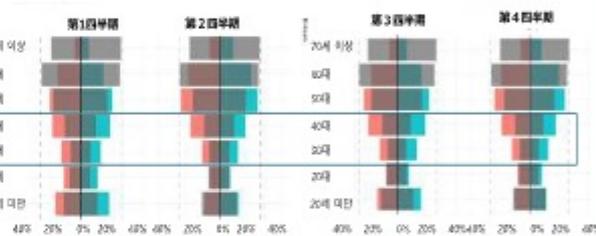
1人当たりの日平均滞在時間(ウオン/滞在日)



業種ごとの売上高の割合 (7～9月、%)



2024年横城郡市半歳別性・年齢別人口分布



資料: エンソヨン他(2025), イ・ウォンド(2025), パク・ジンギョン他(2025)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1. 生活人口の導入背景と概念
2. 生活人口データの特性と構造
3. 江原横城郡の生活人口特性と対応策
4.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IV.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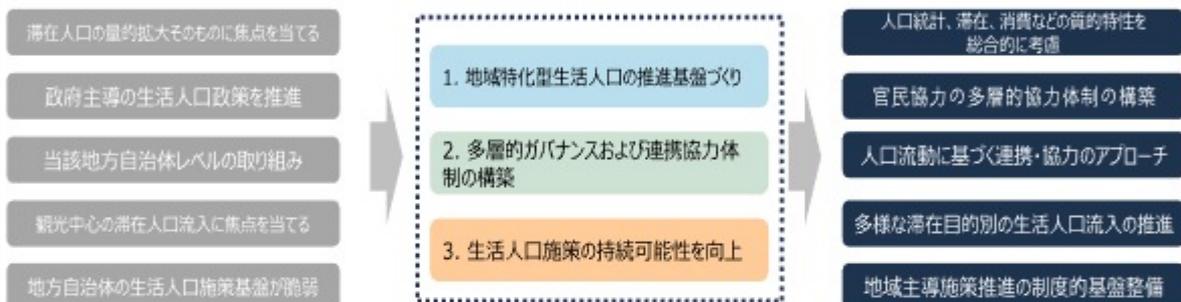
1. 政策の方向転換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単純な観光滞在人口の量的拡大を超え、実質的な地域の人口活力戦略として政策の方向を転換

□ 人口減少時代に応じた生活人口政策の方向転換

- 生活人口の量的流入を超え、人口・滞在・消費などの質的特性に基づく人口活力増進戦略へ転換官主導から官民協力へ、当該自治体レベルでの連携・協力へ転換し、そのための制度的基盤を整備



21

IV. 持続可能な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提言

生活人口の特性に基づく持続可能な地域活力向上戦略：

2. オーダーメイド型の人口活力向上施策の発掘と推進

江原特別自治道横城郡院中心に

自治体レベルでの生活人口データ活用基盤とターゲット別需要に合致するオーダーメイド型施策推進基盤の整備

□ 自治体内の生活人口データ活用基盤の構築

- 人口減少地域別の多様な生活人口特性を体系的に分析し、政策に活用するための基盤づくり
- 自治体における生活人口担当者の指定及びデータモニタリング体制構築、教育・ワークショップ、コンテスト開催などの検討

<地方自治体の生活人口データへのアクセス方法>



□ 生活人口に合わせた施策の発掘と推進

- 地域別生活人口の多様な特性と需要に基づき、カスタマイズ施策の発掘・推進のための体系構築
- 事業部門参加の生活人口TF運営、生活人口登録制度を通じたターゲット別需要把握およびカスタマイズ施策を推進

<地方自治体生活人口TF運営事例（全北特別自治道）>



資料：全羅日報（2025年5月7日）

22



## 参考文献

- Ha, H. J., Lee, Y., Kim, K., Park, S., & Lee, J. (2024). Spnaf: An R package for analyzing and mapping the hotspots of flow datasets.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https://doi.org/10.1177/23998083241276021>
- イ・ウォンド他. (2023). 人口減少地域の原因分析研究業務 (行政安全部委託業務課題). 韓国地方行政研究院.
- イ・ウォンド他. (2024). 生活人口作成のための研究 (統計庁委託業務課題). 韓国地方行政研究院.
- イ・ウォンド. (2024). 人口減少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生活人口の導入. 地方自治政策ブリーフ, 韓国地方行政研究院.
- ユン・ソヨン 他. (2025). 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特性分析研究委託. 韓国地方行政研究院.
- 總務省(2018).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 イ・ソヨン・キム・ドヒョン. (2021). - 小さくても強い繋がり - 関係人口を活用した人口流入策. 韓国地方行政研究院.
- 統計庁. (2019). 生活時間調査.
- 統計庁(2025.6.26.). 2024年第4四半期生活人口算定結果.
- 行政安全部報道資料(2025.8.26.). 第二の居住地で地域特化型支援を受けましょう! 『生活人口登録制』導入
- イ・ウォンド. (2025). 地域間連携協力強化のための新たなアプローチ: 人口減少地域の生活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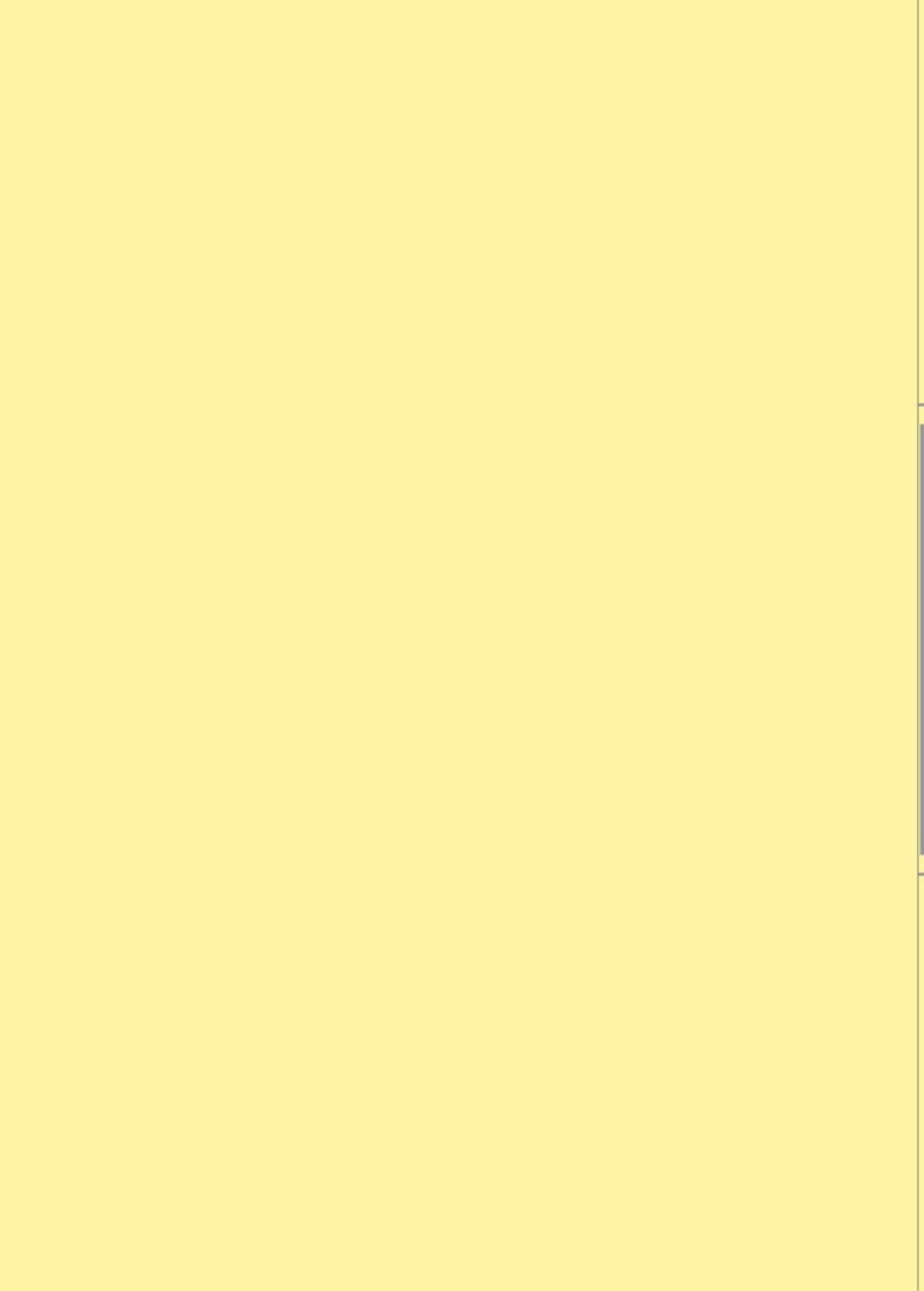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횡성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横城地域の活力向上のための地域活性化国際フォーラム

**- 종합토론 (総合討論) -**



## 1. 종합토론 (綜合討論)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ク・ジョンテ 韓国市長郡守区庁長協議会 上席専門委員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협의회 정책 과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구정태

### 1)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제도개선

#### □ 현 황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영되고, 재원규모는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등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로 총 122개 자치단체에에 평균 약 80억원이 배분되고 있음
- 기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사용 (지방기금법 제24조)
  - (HW) 정주.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 ※ 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역보건, 응급의료기관, 청년창업공간 등
  - (SW)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 ※ 청년보금자리지원 사업, 마을주치의 사업, 창농기업경영 컨설팅 등
  - (제외) 지방비 매칭,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등

#### □ 문제점

- (중장기 사업 제한) 2031년 기금 유효기간에 따른 단년도 사업평가, 짧은 투자계획 수립 기간 등은 다년도 중장기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
- (인구감소 대응 한계) 1조원을 공모방식 등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평균 약 80억원)함으로써 과열 경쟁과 소액사업 추진에 따른 장기적 인구정책 성과 창출 한계
- (기금용도 제한) 기금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용할 인건비나 경상비는 제외됨으로써 안정적 운용이 어려움

#### □ 정책과제

- ① (기금규모 확대) 현행 1조원 → 5조원으로 확대(평균 약 420억원)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계속 증가 대비
- ② (기금 유효기간 폐지) 기금의 2031년까지 유효기간 폐지
- ③ (기금용도 확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건물 리모델링 지원
  -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인건비나 경상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까지 확대
    - ※ 정주.체류를 위한 필수시설(의료시설 등)의 인건비와 경상비로도 일부 활용
  - 지역의 유휴시설을 효율적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 필요

## 2)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 □ 현 황

-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1.1.부터 시행, 2024.2.1부터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개선
-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개선(2024) :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전자매체, 향우회 등 가능),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5백만원→2천만원), 지정기부 근거 마련, 민간 플랫폼 허용 등
-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대비 2024년 35% 증가(650억→879억)하였으나, 규제는 풀고 기부는 넓히도록 지속적 개선 필요

### □ 필요성

- (참여 유인 확대)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 및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향 조정 필요
- ※ (일본) 기부 한도가 없고, 기부자 부담액 2000엔(약 2만원) 초과는 전액 세액공제
- (사용 목적 다양화) 기금 모집 비용(15%)외 법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 대부분 주민 복리에 활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부족
  - ※ 현행 법상 기부금을 재난의연금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고향 납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됨.
- (법인 기부 허용) 법인의 지역 기여와 사회공헌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기부는 불가하여 이를 법인까지 확대해야 함

### □ 정책과제

- ① 세액공제액 확대 적용 : 현행 1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 ② 기금사업 확대 : 지역발전 등의 재원에 활용하도록 확대
    - ※ (일본) 지역 주민복지 증진 외에 지역산업 증진, 관광·교육·정주 촉진 등 다양한 지역발전 용도로 활용
    - ※ (우리나라) 광주 동구의 경우 2024년 25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전국 최다)하여 발달장애인 야구장, 통기타 음악교실,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
  - ③ 법인 기부제 도입으로 안정적으로 재원확보
    - ※ (일본) 2023년 기준 고향납세 모금액은 1조엔(약 10조원)으로 이중 법인 참여는 470억엔(4,600억원)
- ➔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재정적 주민참여의 성공적 제도

### 3) 지역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 □ 현 황

-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심화) 인구와 일자리, 성장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 기여율  
: 2015년 이전 51.6% → 2015년 이후 70.1% (한국은행, 2022)
  - ※ 수도권 GRDP 비율 : 2000년 48.41% → 2015년 50.11% → 2022년 52.53%
- (광역 내 기초 간 불균형 심화) 지역산업 정책은 광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광역 내 기초 간 불균형 해소에 한계

#### □ 필요성

- (지역 연고산업 지원 강화) 시군구 소재 중소기업 연고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이탈 방지 및 재정·인프라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요청
-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강화)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군구 고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확대 필요
- (기존 정책의 규모 및 효과 제고) 인구감소(관심)지역 경제활성화 목적정책도 지원 규모나 기간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선 절실
  - ※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의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중
- (지역 중소기업 위기 극복) 산업생태계의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부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취약성 심화

#### □ 정책과제

- ① 지역 연고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제도화 건의
    -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금 설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1의3 지역 연고산업 항목 신설
  -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체계 구축 및 지원
    - 중소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산하 유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TF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건의
    - ※ (예) 5극 3특 등 초광역권 협업,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조기업 육성,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지원 등
- ➔ 이상 3개 과제는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소멸대응과 5극 3특 균형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

人口減少地域 地方消滅対応のための協議会政策課題

大韓民国市長郡守区庁長協議会

主席専門委員 グジョンテ

1) 地方消滅対応基金の拡大および制度改善

■ 現況

- 地方消滅および地域の人口減少に対応するため、同基金は2022年から2031年までの10年間、時限的に運営されており、財源は政府出捐金1兆ウォンおよび前年度決算剰余金等で構成される。
- 地方消滅対応基金1兆ウォンは、人口減少地域89カ所、関心地域18カ所、さらにソウル・世宗を除く5の市・道に至るまで、合計122自治体に平均約80億ウォンずつ配分されている。
- 同基金は、地方消滅対応関連基盤施設の造成支援に使用される（地方基金法第24条）。
  - (ハード事業) 定住・滞在環境改善のための基盤施設整備
  - ※ 近隣公園、公営賃貸住宅事業、地域保健・救急医療機関、若者創業空間など
  - (ソフト事業) 地方消滅防止・地域活力向上のためのプログラム
  - ※ 青年住宅支援事業、地域主治医制度、創農企業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等
  - (除外) 地方費のマッチング、人件費、経常経費等の消耗的経費、現金性支援等は不可。

■ 問題点

- (中長期事業の制約) 2031年までの基金の有効期限により、単年度評価中心・短期投資計画に偏重し、中長期的・複数年度事業の発掘と推進に限界がある。
- (人口減少対応の限界) 1兆ウォンを公募方式で平均80億ウォンほど各自治体に配分する構造では、競争過熱および小規模事業への分散をもたらす、人口政策としての長期的成果創出に限界がある。
- (基金用途の制限) 基盤施設・プログラム運営のために必須となる人件費・経常費は使用不可であり、安定運営が難しい。

■ 政策課題

- ① (基金規模の大幅拡大) 現行1兆ウォン → 5兆ウォンに拡充 (平均約420億ウォン)
  - 中長期的視点での大胆な投資、将来の人口減少地域増加に備えた基金強化
- ② (基金有効期限の撤廃) 2031年までの時限構造を廃止
- ③ (基金用途の拡大) 制度およびプログラム運営 (人件費や経常費など) を支援するための支援事業にまで拡大
  - ※ 定住・滞在のための必須施設 (医療機関等) の人件費・経常費にも一部活用
  - 地域の遊休施設活用のため、リノベーション費用も基金対象として柔軟に認める必要がある。

## 2) ふるさと愛寄附制度の改善

### ■ 現況

- ふるさと愛寄附制は健全な寄附文化造成と地域経済の活性化を目的として2023年1月1日から施行。2024年2月1日には不備点を補完 改善した。
- ※ ふるさと愛寄附制の改善(2024) 寄附金募集方法の緩和 (電子媒体 郷友会等を許容)、年間寄附上限の拡大(500万→2000万ウォン)、指定寄附根拠の新設、民間プラットフォームの許容など
- ふるさと愛寄附金は2023年の650億ウォンから2024年には879億ウォン35%増加したものの、規制緩和と寄附拡大のためには継続改善が必要である。

### ■ 必要性

- (参加誘因の拡大) 10万ウォンまで100%税額控除、10万超過分16.5%控除しており、地域経済活性化の観点から上方修正が必要である。
- ※ (日本) 寄附上限なし、2000円超過分は全額税額控除
- (使途の多様化) 募集経費15%以外は法律で定められた用途に限定されており柔軟な活用へ拡大が必要(ふるさと愛寄附金法第11条2項)である。
- 現行は住民福祉中心で、地域産業・活性化事業の推進が不足
- ※ 韓国では災害義援金への使用が不可欠だが、日本では2011年東日本大震災がふるさと納税拡大の起爆剤となった。
- (法人寄附の許容問題) 企業の地域貢献 社会貢献意識が拡大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法人は寄附不可 → 法人寄附も認める方向での制度改善が必要である。

### ■ 政策課題

- ① 税額控除限度額の拡大：現行10万ウォン → 50万ウォンへ拡大
- ② 基金事業の拡大：地域発展財源へ拡大
  - ※ (日本) 地域住民の福利増進以外に地域産業の増進・観光・教育・定住促進など様々な地域発展の用途として活用する。
  - ※ (韓国) 光州東区は2024年に25億ウォンを募集(全国最多)。障害者野球場、ギター教室、都心型保護犬センター、定住環境改善など多様な事業に活用
- ③ 法人寄附制度の導入による安定的財源確保
  - ※ (日本) 2023年ふるさと納税総額1兆円、そのうち法人寄附は470億円
  - ➡ 国および地方の財政負担を軽減しつつ、住民参加型財源確保として非常に有効な制度

## 3) 地場産業活性化支援

### ■ 現況

- (首都圏・非首都圏の格差拡大) 人口や雇用、成長産業の集中が首都圏に偏在し、首都圏と非首都圏の成長率やGRDPの格差が深刻化
- ※ 首都圏の全国経済成長寄与率：

: 2015年以前 51.6% → 2015年以降 70.1% ( 韓国銀行、2022 )

※ 首都圏GRDP比率 : 2000年 48.41% → 2015年 50.11% → 2022年 52.53%

- ( 広域内の基礎自治体間不均衡の深刻化 ) 地域産業政策が広域中心の均衡発展を目的に推進され、基礎自治体間の不均衡解消に限界がある。

■ 必要性

- ( 地場産業支援の強化 ) 市・郡・区所在の中小企業 地場産業を活性化し、首都圏集中と地域離れを防ぐため、財政・インフラ等の全面的支援が必要である。
- ( 地域中小企業育成政策の強化 ) 住民定住環境の改善、生活インフラの拡充と併せて、市・郡・区固有の地域産業発展と中小企業育成政策を強化すべきである。
- ( 既存政策の規模・効果の向上 ) 人口減少(関心)地域経済活性化政策の支援規模・期間が限定的で、改善が急務である。

※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および関係部処による 市・郡・区地場産業育成協業プロジェクト」など

- ( 地域中小企業の危機回復 ) 産業生態系の地域中小企業革新政策が不足しており、グローバル経済の危機に伴い脆弱性が高まっている。

■ 政策課題

① 地場産業育成のための投資拡大および制度化の申し建て

- 地域産業育成のための基金の設立、地域中小企業育成および革新促進に関する法律」第2条

1

の3に「地場産業」条項を新設

② 人口減少地域支援の専担機関設置および運営体系の構築

- 中小企業部、行政安全部などの中央部処、関連機関、市長郡守区庁長協議会が参加する委員会またはTFの構築・支援計画樹立の申し建て

※ 例 : 超広域圏協業 ( 5極3特 )、ふるさと愛寄付制返礼品製造企業の育成、人口減少地域

の創業支援など

➔ 上記3課題は、地域主導の持続可能な地方消滅対応と 「5極3特」均衡発展のために必須である。

## 2. 종합토론 (綜合討論)

김민지 채널A차장

キム・ミンジ チャンネルA 次長



## 일본 지역 발전의 힘은?

부제: 일본 지역 취재 사례 보고

발표자: 채널A 김민지 기자·전 도쿄특파원

## 다시 가고 싶은 곳(また行きたい場所)

군마현 가와바촌(川場村) / 치바현 고난초(碓南町) 호타소학교 / 오카야마현 니기초(崇義町)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都城市)



## 인상 깊었던 이유

- まち(마을) :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
- ひと(사람) : 청년 귀농, 지방 정착
- しごと(일) : 지역 산업과 고용 창출

지방창생(地方創生)

2015년 아베 내각이 도입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 목표  
도쿄 일극집중 완화 & 지역 자립경제 활성화

## 사례① : 길 위의 역 – 군마현 가와바촌



1년 매출 23억 엔  
방문객 250만 명

## 사례① : 길 위의 역 – 군마현 가와바촌



[도야마 교타로 / 군마현 가와바촌장]

“휴게소에서 마을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도 팔 수 있으니 다들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런 시골에서도 이 정도 규모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것은 4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 사례② : 폐교의 재탄생 – 치바현 교난초 호타소학교



126년 된 소학교  
2014년 폐교 후  
지역교류시설 겸  
숙박시설로 재탄생

연간 100만 명 방문

## 사례② : 폐교의 재탄생 — 치바현 교난초 호타소학교



## 사례② : 폐교의 재탄생 — 치바현 교난초 호타소학교



[산페이 / 호타 휴게소 관리인]

“저는 이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마을 살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민도 참여하고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이색적 장소로 계속 사랑 받고 싶습니다.”

## 사례③ : 출산율 2.95의 기적 - 오카야마현 나기초



## 사례③ : 출산율 2.95의 기적 - 오카야마현 나기초



- ① 일자리 편의점
- ② 공동육아
- ③ 저렴한 주택

### 사례③ : 출산율 2.95의 기적 — 오카야마현 나기초



[오쿠 마사치카(奥正親) /  
오카야마현 나기초장]  
“나기초는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지역 내 인프라를 유지하는 정책이고 이게 고령자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④ 고향세 1위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 사례④ 고향세 1위 —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 일본 고령화 현황

- 전체 29.4%
- 주요 7개국(G7) 중 1위
- 의료·복지 분야: 2배 이상 증가
- 농업·임업 분야: 약 6만 명 감소



## 결론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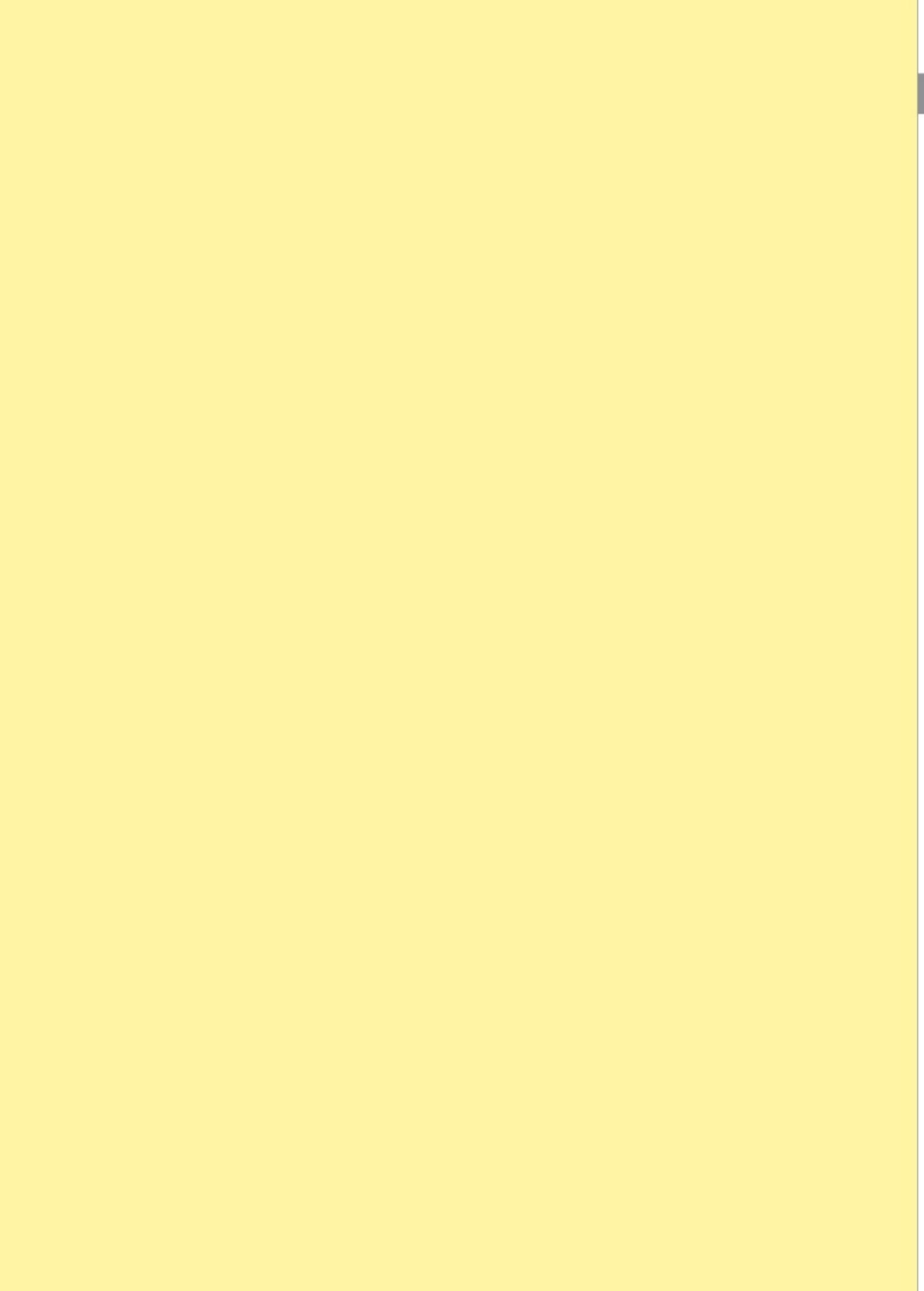
- 주민 주도형 참여
- 지역 고유 자원 활용
- 관계 인구(관광·이주·교류) 확대
- 단순한 인프라보다 '관계'가 핵심



## 2. 종합토론 (綜合討論)

김민지 채널A차장

キム・ミンジ チャンネルA 次長



## 日本の地域発展の原動力は？

副題：日本地域取材事例の報告

発表者：チャンネルA キム・ミンジ記者・元東京特派員

## もう一度行きたい場所

群馬県川場村 / 千葉県銚南町 保田小学校 / 岡山県奈義町 / 宮崎県都城市



## 印象深かった理由

- まち：地域コミュニティの再生(復興)
- ひと：若者の帰農・地方定着
- しごと：地域産業と雇用創出

地方創生

2015年安倍内閣が導入した人口減少対応戦略目標

東京一極集中の緩和 & 地域自立経済活性化

## 事例①：道の駅 — 群馬県川場村



年間売上高23億円  
来場者数250万人

## 事例①：道の駅 — 群馬県川場村



[外山 京太郎 / 群馬県 川場村長]

「サービスエリアで村の方々が働けるようになり、地域の農産物も販売されることで、住民が一層意欲をもって農業に取り組む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山間の小さな地域に、これほど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日が来るとは、40年前には誰も想像していなかったことです。」

## 事例②：廃校の再生 - 千葉県教南町保田小学校



126年の歴史を持つ小学校2014年閉校後  
地域交流施設兼宿泊施設として再生  
年間100万人が訪れる。

## 事例②：廃校の再生 - 千葉県教南町保田小学校



## 事例②：廃校の再生 - 千葉県教南町保田小学校



[三平さん / 保田休憩所 管理人]

「私はこの小学校の卒業生です。  
故郷を元気にしたい一心で戻ってまいりました。  
地域の皆さんも参加でき、観光客の方々にも  
楽しんでいただける、  
そんな個性豊かな場所として、これからも愛され  
続け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 事例③：出生率2.95の奇跡 - 岡山県奈義町



### 事例③：出生率2.95の奇跡 - 岡山県奈義町



- ① 雇用コンビニ
- ② 共同育児
- ③ 安価な住宅

### 事例③ : 出生率2.95の奇跡 - 岡山県奈義町



[奥正親 / 岡山県奈義町長]  
「奈義町では若い世代が移住し、地域に定着することこそが、地域内のインフラを維持するための政策であり、これが高齢者福祉の一つでもあると考えています。」

### 事例④ ふるさと納税1位 - 宮崎県都城市



## 事例④ ふるさと納税1位 - 宮崎県都城市



## 日本の高齢化現状

- 全体 29.4%
- 主要7カ国(G7) のうち1位
- 医療・福祉分野: 2倍以上増加
- 農業・林業分野: 約6万人減少



## 結論：地方が生きてこそ、国が生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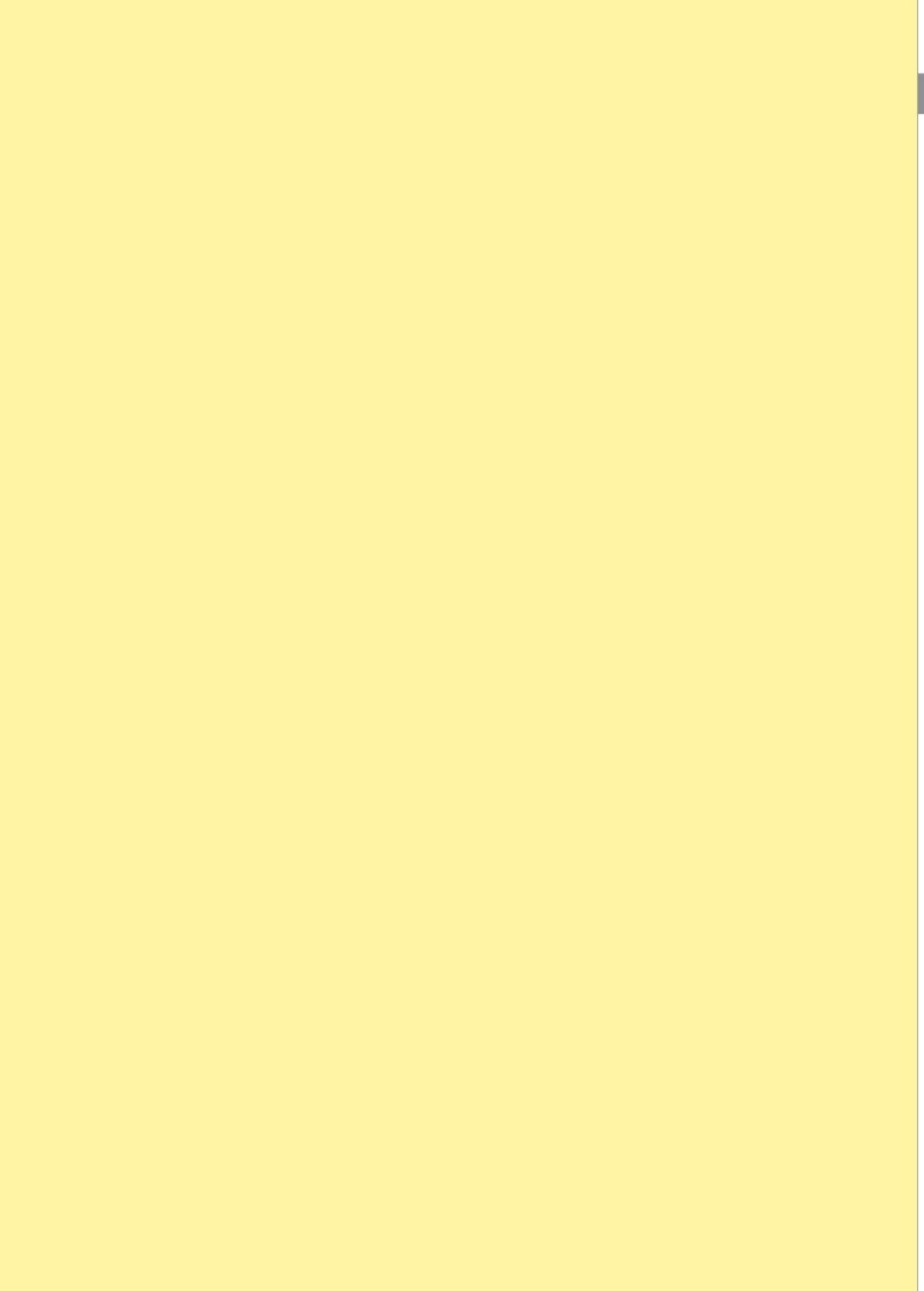
- 住民主導型参加
- 地域固有資源の活用
- 関係人口(観光・移住・交流)の拡大
- 単純なインフラよりも「関係」が核心



### 3.종합토론 (綜合討論)

배승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ペ・スンジョン ソウル大学 グリーンバイオ科学技術研究教授



## 토론문

배승중(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교수)

황성군은 한우, 청정 자연환경, 다양한 농산물 등 풍부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산업 단순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 열쇠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즉 오늘의 포럼 주제인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촌은 고령화의 가속,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공동체 문화의 단절 등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의 경우 대부분의 농촌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 도시에 비해 서비스 선택의 한정된 폭, 외국인, 귀농귀촌자 등 농촌인구 특성의 다양화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농촌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일 양국에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 인프라 확충,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National Minmum) 등을 위해 행안부 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식품부 주도의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2014년부터 지방창생제도를 도입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각국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과 환경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적' 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이 종료되면 유지관리나 자발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 지자체 간 사업격차가 확대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이며 천편일률적인 계획 수립,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Hardware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주도형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이 기획하고 행정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한일 양국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향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주도·지방자율형 정책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중심 구조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전략을 수립해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플랫폼을 지자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인 시설 건축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특화전략 및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성군의 각 읍·면은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한우 중심, 일부는 농산가공, 또 다른 곳은 관광·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문화복지시설 건축 등과 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자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역계획' 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행정의 거버넌스 플랫폼과 역량강화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주민은 스스로 실행 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붕괴되었던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개방된 계획 협의과정과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기존거주자가 주도하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협의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 세대는 경험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역의 변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창업 인큐베이터, 지역농산물 온라인마켓 운영, SNS 홍보단 등을 만들어,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한 사업이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의 참여가 '공허한 의무' 가 아니라 '실질적 보람' 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건축물만 덩그러니 남는 중앙이 통제하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지방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자립형 체계가 진정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농촌의 미래는 주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은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맡고, 주민은 스스로 지역의 비전과 자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앞으로 횡성군이 이러한 인구감소·지방소멸시대 농촌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討 論 文

ベ・スンジョン ソウル大学校 グリーンバイオ科学技術研究院 研究教授

横城郡は、韓牛（ハヌ）、清浄な自然環境、多様な農産物など豊富な地域資源を有している一方、人口減少と高齢化、若年層の流出、産業の単純化など複数の構造的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こうした現実の中で農村の活力を取り戻すための重要な鍵は、住民自らが地域の主体となり変化を生み出していくこと、すなわち本フォーラムの主題である「住民主導の地域活性化」であると考えます。

韓国と日本の農村はいずれも、高齢化の加速化、人口急減に伴う地域消滅の危機、コミュニティ文化の断絶など、共通の問題を抱えています。また、定住環境の観点から見ると、多くの農村住民は都市住民に比べ、特定のサービスを利用できなかつたり、都市部よりはるかに高い費用で低品質のサービスを利用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構造的問題を抱えています。公共・民間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の困難さ、都市に比べ限定的なサービス選択肢、外国人・移住者・帰農帰村者など農村人口の多様化もその要因として挙げられるでしょう。

こうした問題を背景に、農村地域社会に持続可能な生命力を取り戻そうとする取り組みが、韓日両国で進められてきました。韓国では、農村地域の定住インフラ拡充、最低限のサービスの提供（National Minimum）などを目的に、行政安全部主導の地方消滅対応基金、農林畜産食品部主導の農村協約および一般農山漁村開発事業などを通じて、農村の定住環境改善と地域共同体の強化に努めてきました。一方、日本では10年以上前から、特に2014年の地方創生制度の導入以降、人口減少問題に取り組むとともに、地方自治体が自ら地域戦略を立案し事業を展開できるよう誘導してきました。

両国とも、こうした制度導入を通じて、農村生活インフラの拡充や環境整備など物理的環境の改善において一定の成果を上げてきました。しかし、限界も存在します。住民参加が「形式的」に留まる場合が多いこと、事業終了後に維持管理や自主運営が困難であること、自治体間の事業格差が拡大している点などが指摘されています。また、多くの自治体が国家補助金の獲得を目的に形式的で画一的な計画を策定し、地域の実質的な変化よりも外形的なハード事業に偏りがちであるという傾向も見られます。

結局、行政主導型の構造から脱却し、住民が企画し行政が支援する体系への転換が求められています。これまで韓日両国で蓄積されてきた成功と失敗の経験を踏まえ、以下の四つの方向から示唆と改善策を整理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第一に、住民主導・地方自律型の政策体系の強化がもたられます。

中央政府の公募事業中心の構造を脱却し、自治体が自ら地域戦略を策定し予算を配分できるよう制度改編が必要です。毎年中央政府が支援している市郡の能力強化事業プラットフォームを、自治体自らが計画し、短期的な施設建設ではなく、長期的ビジョンをより綿密に策定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ます。

第二に、地域別特化戦略およびコミュニティ経済の活性化を図るべきです。

例えば、横城郡の各邑・面はそれぞれ異なる資源を持っています。ある地域は韓牛、別の地域は農産加工、他の地域は観光・生態資源などを基盤と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すべての地域が同様の文化・福祉施設建設に取り組むのではなく、地域ごとの資源に基づいた「オーダーメイド型地域計画」を策定すべきです。

第三に、住民と行政のガバナンス・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能力強化体系を構築する必要があります。

行政は専門家ネットワークをつなぎ、住民は自ら実行組織（村企業、協同組合など）を構築し運営できるよう支援する必要があります。崩壊した共同体を再構築し、情報アクセス性を向上させ、専門性を強化することで、持続可能な地域生態系をつくり上げるべきです。

第四に、開かれた計画協議過程と持続可能な報酬体系を整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地域の既存住民のみが主導する計画ではなく、計画協議の段階から多様な階層が参加できる構造を整える必要があります。若い世代は新しいアイデアとデジタル能力を持ち、高齢世代は経験と地域特性への深い理解を有しています。多様な階層のアイデアを集め合意形成を行う過程そのものを地域変化の推進力として活用すべきです。若者帰農者を中心としたまち創業インキュベーター、地域農産物オンラインマーケット運営、SNS広報団の組織化など、伝統農業と現代技術を組み合わせた新しい地域経済モデルを育成することが可能です。また、住民が参加した事業が成果を上げた場合、その成果に対して明確な報酬や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れにより、住民参加が「空虚な義務」ではなく、実質的なやりがいとして位置づけられます。

中央が主導し、事業終了後には建物だけが残るような開発ではなく、地域共同体の人々の関係が回復されるよう、地方が自ら設計し実践する自立型体系こそが真の地域活性化につながります。

結局、農村の未来は住民の手にかかっています。行政は支援と調整の役割を担い、住民は自ら地域のビジョンと資源を発掘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後、横城郡がこの人口減少・地方消滅時代の農村地域において模範的事例として位置づくことを期待し、以上で討論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4. 종합토론 (綜合討論)

**이달환 횡성군 행정복지국장**

イ・ダルファン 横城郡 行政福祉局長



## 농촌 집단취락구역과 마을협의체로 농촌의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황성군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농촌마을 살리기는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저 역시 34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대부분 사업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추진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지만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활동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등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은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소멸과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개발명목으로 지어진 시설과 주택 중 상당수는 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계곡, 산림, 하천변 등의 재해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 제도와 경관법의 지역협의체 제도를 강화하여 정책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 집단취락지역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취락지역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변환경의 조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농촌 취락지역은 재해 위험성에 벗어난 안전한 지역 위주로 취락지역을 지정하여 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아 취락지역 외 주택 인허가가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제가 두 차례 허가민원과장을 맡는 동안 주요 집단민원은 축사 등에서 발생한 냄새, 태양광 시설의 경관·재해 위험성, 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마을길, 생활권 갈등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주거시설과 혐오시설을 포함한 생산시설이 뒤섞여 있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황성군은 고령화율 38%, 농촌지역 인구비중의 50%가 넘고 있으며 100명 남짓의 출생아 등 지역소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소멸지역에 대한 기본소득정책인 '햇빛 연금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성군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재원 창출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거시설과 생산(협오시설 포함)시설을 분리하는 농촌·농업의 재구조화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소득, 농촌복지 위주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농촌, 농업의 문제점의 핵심인 농촌의 갈등 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지구의 주거시설을 집단취락지역으로 이주시킨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 지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절감과 농촌교통, 복지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는 스마트, AI를 접목한 농촌마을 만들기로 편리성과 복지는 물론 전문 일자리도 만들어 젊은층의 귀촌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법상 지역협의체 구성의 예산과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마을만들기는 농촌마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관광이든 마을특색화 사업이든 마을 정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획된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에 나서야 하고 그 마을만의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로 경쟁력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경관법에서 규정한 지역협의체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권장형인 아닌 법적지위 즉 구속력을 가질수 있어야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규약에 의한 체계적이고 발전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취락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면 갈등유발 요소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시켜 갈등 요인을 없애고 또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 지역 재원창출 방안도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마을만들기 정책들이 나오고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편리하게 잘사는 마을을 위해 정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농촌지역도 재구조화, 농촌재생을 통해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정책 실현을 지금보다 빨리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기초를 다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가적 관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농촌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 제안들이 정책화 되어 제가 사는 황성군에서 부분적으로나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꿈을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잘사는 마을. 잘사는 농촌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農村集團集落区域とまちの協議会による農村再構造化の先行的推進

横城郡 行政福祉局長のイ・ダルファンと申します。

農村地域の活性化は、政府とすべての自治体が重点施策として推進してきた課題です。私自身も34年間、公職に携わりながら様々な現場を経験してきました。多くの予算と人材を投入し、地域活動家を育成し、農村を再生するために努力してきましたが、事業の初期には情熱的に進められても、時間が経つと持続できないケースが多くありました。

政府や各自治体が多様な政策と予算を投入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補助事業が終了すると活動が弱まったり、新たな対立が生まれたりするなど、成功事例が継続的に拡散される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

それでも農村は少しずつ変化し、発展してきました。しかし現在、農村は人口消滅と気候変動という深刻な環境変化に直面しています。農村地域では子どもの泣き声が聞こえなくなって久しく、開発名目で建設された施設や住宅の相当数は維持が困難な状況です。特に溪谷や森林、河川沿いなど災害脆弱地域に位置する施設は、気候危機の影響で災害リスクがさらに高まっています。

私はこうした農村地域の問題を解決する方策として、国土計画法に基づく「集落地域」制度と、景観法上の「地域協議会」制度を強化し、政策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まず、農村における集落地域指定の必要性です。

集落地域とは、住民が集中的に生活する空間であり、周辺環境との調和や住民福祉の向上のため制度的に管理される区域です。

しかし現実には、農村の集落地域は災害リスクの低い地域を中心に指定されてきたため、本来の法の趣旨とは異なり実効性が低く、区域外での住宅許認可が多数発生してきました。

私が二度、許可民願課長を務めた際、住民からの主要な集団苦情は、畜舎による悪臭、太陽光発電施設の景観・災害リスク、帰村者と地元住民の間の生活道路・生活圏をめぐる葛藤でした。これは結局、居住施設と生産施設（嫌悪施設を含む）が混在している農村の構造的問題に起因しています。

現在の横城郡は高齢化率38%、農村地域人口割合50%超、出生数は100名足らずで、地域消滅の危機が極めて深刻な段階に達しており 特段の対策が必要な状況です。

政府も消滅地域に対する基本所得政策である「太陽年金政策」などを推進しており 横城郡でも再生エネルギーを基盤とする地域財源の創出を準備していますが、これについても現実的には多くの困難が予想されます。

したがって、今こそ居住施設と生産施設（嫌悪施設を含む）を分離し、農村・農業の再構造化を始める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政府は農業の再構造化を推進していますが、農業所得や農村福祉中心の計画が多く 最も重要な 農村、農業の問題点の中心である農村の葛藤構造に対する構造的な対策は見られません。

隣国の日本では、1970年代末から1980年代にかけて、気候変動による災害リスク地域の住居を集落地域へ移転させる政策が行われた事例があります。

集落地域の指定は、気候変動に伴う災害予防だけでなく 道路舗装・上水道・下水道など基盤施設の予算削減、農村交通や福祉サービスの体系的な整備にもつながると考えています。

さらに、時代の変化に合わせ、スマート技術やAIを取り入れた農村づくりにより、利便性と福祉が向上し、専門的な雇用も生まれ、若い世代の帰村を促すことも可能です。

第二に、景観法に基づく地域協議会の構成に予算と法的地位を付与する必要性です。

一律かつ画一的なまちづくりは、農村地域の競争力が低下する恐れがあります。農村観光にせよ、地域特色化事業にせよ、ま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確立してこそ成り立ちます。

自治体主導のまちづくりも必要ですが、これからは住民自らが主体となり、自分たちのまちの規約を作り、それを守り、新しい雇用を創り出し、持続可能で競争力のあるまち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景観法で規定された地域協議会に権限と義務を付与し、推奨型ではなく法的地位、すなわち拘束力を持たせることで、継続的な予算投入と規約に基づく体系的で発展可能な構造を構築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第三に、集落地域という安全装置を設けることで、葛藤を生む要因となる施設を集落から離れた場所に配置し、葛藤要因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また、再生エネルギーや廃棄物処理など地域財源創出の仕組みも、現在より有利な構造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

これまで無数のまちづくり政策が打ち出され、農村が今より安定し便利で豊かに暮らせるよう政策面で多くの投資が行われてきました。しかし今こそ、農村地域も再構造化、農村再生を通じて成功するまちづくり政策をより早く実現し、持続可能なまちづくりの基盤整備から着手す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

今日申し上げたことは、専門的知見というよりも、これまで農村行政の現場に身を置く中で、私自身が見て、感じ、考えてきたことをまとめたものにすぎません。しかし、こうした提案のいくつかが政策として形となり、私の暮らす横城郡において、たとえ一部であっても試行される日が来るのではないかと、密かに思い描いたこともござ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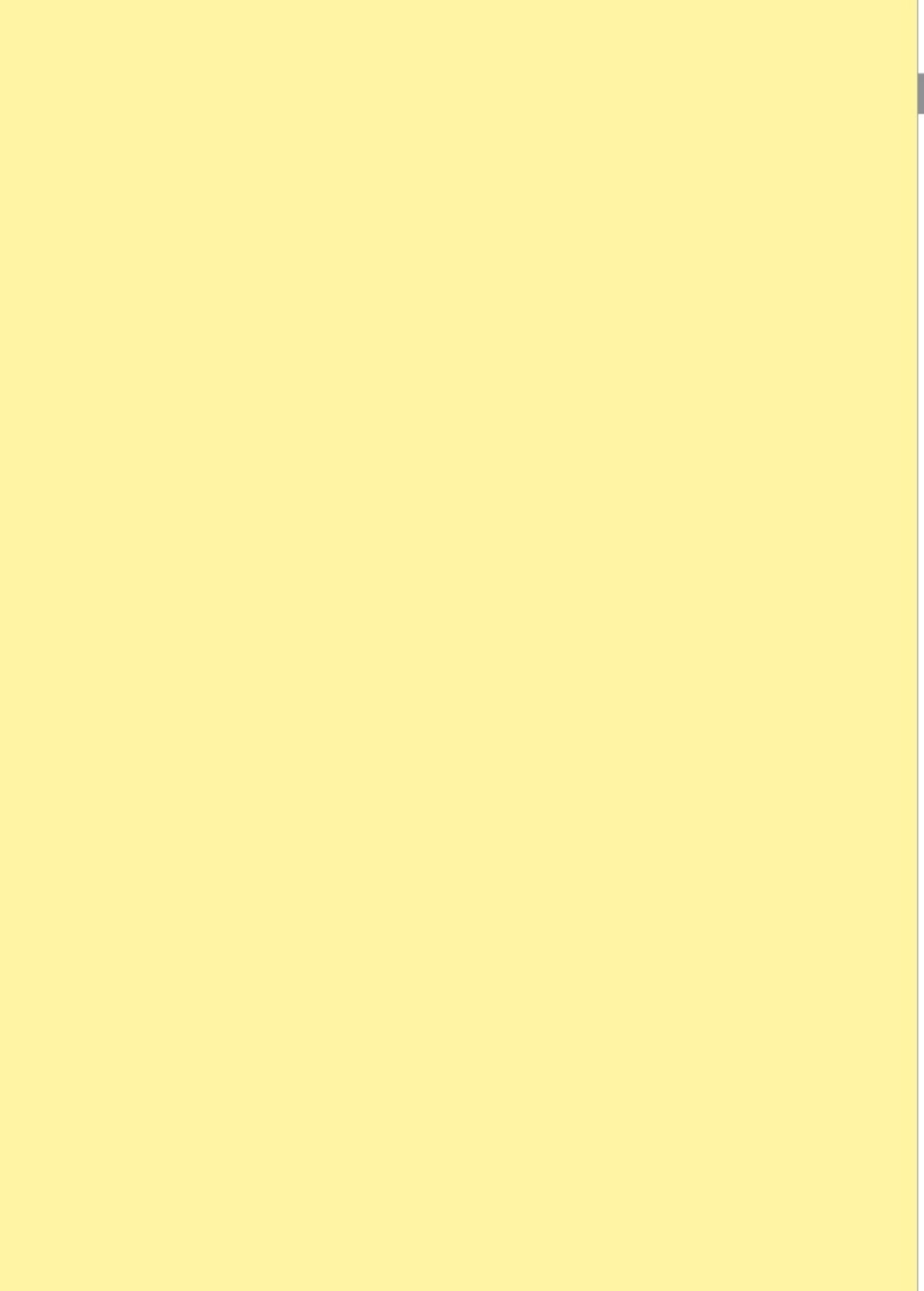
「豊かな村、豊かな農村」、その実現は決して容易ではありませんが、それでも、必ずや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ぬ目標であ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5.종합토론 (綜合討論)

한용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ハン・ヨンドク 行政安全部 均衡発展制度課 署記官



## 「인구감소 · 지방소멸시대,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포럼」 토 론 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한용덕

### 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준비

- 최초 지정(‘21.10.)이후, 재지정\* 기한 도래(‘26.10.)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5년마다 지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지표 및 산정방식 등 종합 검토(지행연)
-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
  - 국책연구기관(6월), 시도 연구원 및 시도 관계자회의(7월), 전문가 회의(11월)
- 앞으로, 시군구 단위 권역별 설명회 추진(‘25.11.~)

### ②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

#### □ 추진 배경

-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규제 합리화 필요

#### □ 그간 추진사항

- ①정주여건, ②생활인구 확대, ③지역경제 활성화 등 26건 특례 발표
  - \* 총리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24.7.18.)
- 특례 성격에 따라 관계 법령 및 훈령 등 개정 추진
  - 인구감소지역법<sup>10건→9건</sup>, 개별법령(건축물관리법, 수도법 등)<sup>5건</sup>, 훈령·고시 등<sup>11건</sup>

#### □ 특례 확대 계획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①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 중심의 특례, ②인구감소시대에 맞게 기준 완화 특례 발굴

☞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합리화

\* 예) 콘도미니엄업 기준(30실 → 20실이상), 작은도서관 기준(1천권 → 5백권)

### ③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계획

#### □ 2025년 생활인구 산정계획

- (대상) 인구감소지역 전체(89곳)
- (기간) 월별 생활인구를 분기별로 산정(통계청)하여 공표
- (방법) 공공 (주민·외국인), 민간 (이동통신·신용카드·KCB) 데이터를 가명·결합 처리

< '23년 시범산정 대비 '24 ~ '25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23년	'24년	'25년
대상	7개 지역	89개 지역	'24년 동일
활용 정보	공공·통신 데이터	기존+(추가)신용카드·신용정보	'24년+신용카드사 확대(4→6개) ·(신한, 삼성, BC, 하나) + (국민, 농협)
분석 정보	내·외국인수, 체류일수 등	기존+(추가)체류 목적·특성 등	업종 등 분류 세분화(대분류→중분류)

#### □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 인구감소지역에서 여러 방안으로 생활인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계 활성화, 체계 구축, 제도 마련 등 전반적 개선 추진

생활인구 통계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생활인구 확보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통계 항목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업종 및 직업군 세분화</li> <li>- 생활인구 특성 분석</li> </ul> </li> <li>○ 공공분야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지표에 반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통계시스템 개선(통계청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플랫폼에 통계현황 및 시각화 자료 등록</li> </ul> </li> <li>○ 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공모를 통한 우수사례 전국 확산 촉진 및 행정·재정 지원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인구 등록제 등 생활인구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li> </ul> </li> <li>○ 체류형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체험형 답례품(이용권, 숙박권 등)을 확대·발굴하여 생활인구 재유입 유도</li> </ul> </li> </ul>

### ④ 기타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 (기간/장소) '25. 9. 9.(화) ~ 9. 12.(금) / 일본 총무성, 나가노현
- (주요내용) ①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활성화정책 소개,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 등 3개 주제토론, ②나가노현 우에다市\* 방문

\* 지역자원(계단식 논, 지역 술, 농산물 등)을 활용해 도시와 농촌, 지역 문화관광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입체적 기획이 인상적이었음

## 人口減少 地方消滅時代、住民主導地域活性化フォーラム」 討 論 文

行政安全部 均衡発展制度課 書記官 ハン・ヨンドク

### 1. 人口減少地域の再指定準備

- 初回指定（2021年10月）以降、再指定\*の時期が到来（2026年10月）
  - ※ 地方分権均衡発展法」および 人口減少地域指定告示」に基づき5年ごと指定
- 人口減少地域の指定基準、指標および算定方式などを 地方行政研究院で総合検討
- これまでの意見収集
  - 国策研究機関との協議(6月)、市・道研究院および市・道関係者会議(7月)、専門家会議(11月)
- 今後、市・郡・区単位の地域別説明会を推進予定(2025年11月～)

### 2. 人口減少地域における特例の発掘

#### □ 推進背景

- 人口成長期に制定された規制が地域の現状を考慮せず適用されており 人口減少時代に見合った規制の合理化が求められる。

#### □ これまでの推進状況

- ①居住環境、②生活人口の拡大、③地域経済活性化など26件の特例を発表

※ 総理主宰の懸案関係長官会議にて 人口減少地域の規制特例拡大方案」を公表(2024年7月18日)

- 特例の性格に応じて、関連法令・訓令等の改正を推進

- 人口減少地域法<sup>10件</sup> → <sup>9件</sup>、個別法令（建築物管理法、水道法など<sup>5件</sup>、訓令・告示等<sup>11件</sup>

#### □ 特例拡大計画

- 財政投入や長期課題よりも、① 国民・企業が体感できる規制解消中心の特例、② 人口減少時代に合わせた基準緩和型の特例の発掘を重視

▶ 他法令で定めている各種基準を、人口減少時代に合わせ合理化

例) コンドミニアム業基準：30室 → 20室以上、小さな図書館：1,000冊 → 500冊

### 3. 生活人口の算定および活性化計画

#### □ 2025年 生活人口算定計画

- (対象) : 人口減少地域 (89地域)
- (期間) : 生活人口を月別算定を四半期ごとに公表 (統計庁)
- (方法) : 公共 (住民・外国人) + 民間 (移動体通信・クレジットカード・KCB) データを仮名化・結合処理  
 <2023年試算算定と比較した2024~2025年の主な変更事項>

区分	2023年	2024年	2025年
対象	7地域	89地域	2024年と同様
活用 情報	公共・通信データ	既存+ (追加) クレジットカード・信用情報	2024年+カード会社拡大 (4社→6社) * (新韓・三星BC・Vナ) + (国民・農協)
分析 情報	内・外国人数、滞在日数など	既存+ (追加) 滞在目的・特性など	業種分類を細分化 (大分類→中分類)

#### □ 生活人口活性化計画

- 人口減少地域にて様々な方策で生活人口の増加につながるよう、統計活性化、推進体制整備、制度づくりなど総合的な改善を推進

生活人口統計の活性化	推進体制の構築	生活人口確保制度の整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生活人口統計の高度化</li> <li>- クレジットカード業種・職業群の細分化</li> <li>- 生活人口特性の分析</li> <li>◦ 公共分野での活用拡大</li> <li>- 地方交付税補正需要・地方消滅対策基金評価指標への活用拡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生活人口統計システムの改善 (統計庁との連携)</li> <li>- 統計庁ビッグデータ統計プラットフォームに統計現況および視覚化資料を登録</li> <li>◦ 優良事例の発掘</li> <li>- 事例公募による優良事例の全国拡散促進および行政・財政支援の検討</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条例制定の拡大</li> <li>- 生活人口登録制度など生活人口活性化体系構築のための参考条例案の整備</li> <li>◦ 滞在型ふるさと愛寄付制度の拡大</li> <li>- 訪問・体験型の返礼品 (利用券、宿泊券など) を拡大・発掘し、生活人口の再流入を誘導</li> </ul>

### 4. その他 (第25回 韓日内政関係者交流会議)

- (期間/場所) 2025年9月9日 (火) ~9月12日 (金) / 日本総務省・長野県
- (主な内容) ① 地方消滅対応のための活性化政策の紹介、財政格差の解消に向けた地方財政発展方向など、3つのテーマについて討議、② 長野県上田市\*訪問

※ 上田市では、階段式水田、地元酒、農産品などの地域資源を活用し、都市と農村、地域文化・観光の連携を強化し、地域経済に好循環を生む立体的な企画が印象的であった。







